

倪謙의 『奉使朝鮮唱和詩卷』에 對 한 研究

A Study on 『Bongsachosunchanghawsikweon』 by Ye-kyeom

辛承云 (Shin, Seung-Woo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詩卷의 全文과 對校 |
| 2. 詩卷의 構成과 形態 | 6. 結 論 |
| 3. 詩卷의 唱和者들 | <參考文獻> |
| 4. 倪謙의 入國과 朝鮮의 應對 | |

< 초 목 >

이 글은 조선 세종 32년(1450)에 명나라 景泰帝의 登極詔書를 가지고 사신으로 왔던 倪謙 (1415-1479)이 조선의 名流인 鄭麟趾·申叔舟·成三問과 唱和 한 詩를 卷子로 成冊한 『奉使朝鮮 唱和詩卷』을 연구한 것이다. 이 시권은 명나라 사신과 주고받은 시문을 엮은 『皇華集』의 첫머리에 수록된 것으로 후기 황화집의 모범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권은 예겸의 후손에게 전해오다가 20세기 중엽에 한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韓中간의 외교사와 학술교류의 연구에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논문에서는 예겸의 입국과 활동, 조선의 응대 및 詩卷 全文의 對校 등을 다루었다.

要語 : 奉使朝鮮唱和詩卷, 倪謙, 鄭麟趾, 成三問, 申叔舟, 皇華集

* 成均館大學校 人文學部 副教授

접수일: 2004년 9월 10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s in Ye-kyeom(倪謙) envoyed from Ming(明) with Kyeongtaeje's(景泰帝) coronation note in 1450 < of the time of king Se-jong(世宗) of Chosun(朝鮮)> and the 『Bongsachosunchanghwasiikweon』(奉使朝鮮唱和詩卷) edited the poems written by Jeong-Inji(鄭麟趾), Shin-Sukju(申叔舟), Seong-Sammoon(成三問) and Ye-Kyeong, and they exchanged their poems each other.

This poetry has become a pattern for the 『Hwanghwajib』(皇華集) collected of poems exchanged by literary scholars of Chosun and the envoys of Ming. The 『Bongsachosunchanghwasiikweon』(奉使朝鮮唱和詩卷) was inflowed into Korea in the mid twentieth century, it is a very valuable material for study on the diplomatic history and the academic exchanges between Chosun and Ming. This study deals with Ye-kyeom's entry, activity, Chosun's dealing with the envoys of Ming, the contents and the value of it.

keywords : Bongsachosunchanghwasiikweon, Ye-kyeom, Jeong-Inji, Shin-Sukju and Seong-Sammoon, Hwanghwajib

K C I

1. 머리말

이 글에서 다루려는 『奉使朝鮮唱和詩卷』은 朝鮮 世宗 32년(1450)에 明나라 景泰帝의 登極詔書를 가지고 使臣으로 온 倪謙(1415-1479)이 朝鮮 最高의 名流들인 鄭麟趾·申叔舟·成三問과 唱和한 詩를 卷子로 成冊한 것이다. 필자가 이 詩卷을 처음 接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故 靑溟 任昌淳 선생의 書室에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國譯硏修院에서 선생께 受學한 몇몇 同學들과 새해에 세배를 가곤 하였는데, 그럴 때면 거의 언제나 소장본 중의 귀중한 책들을 보여주곤 하셨다. 이 詩卷도 그런 기회에 접한 책 중의 하나였다. 당시에는 16미터에 이르는 그 규모와 책에서만 접하던 世宗朝의 대표적인 名流들의 또렷한 筆跡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참으로 稀代の 珍寶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이 詩卷은 선생 만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收藏本이 되었다. 필자가 이 시권을 다시 접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지정신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그간 佚書로 알려져 왔던 倪謙의 『遼海編』이 서문에 약간의 缺落이 있는 것을 제하고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중국에서 影刊되었는데, 이에선 예겸의 使行과 이 詩卷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본 詩卷과 예겸의 『遼海編』에 수록된 詩文, 그리고 그의 『朝鮮紀事』 및 우리 측의 관계자료를 대상으로 예겸의 입국과 그 路程, 그리고 국내에서의 활동과 조선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이 詩卷과 『皇華集』·『成謹甫集』·『保閑齋集』·『遼海編』에 수록된 詩文의 對校 등을 통해서 이 詩卷의 문화사적 가치 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詩卷의 構成과 形態

『奉使朝鮮唱和詩卷』(이하 시권으로 약칭)은 倪謙과 同時代人인 王叔安이 篆書로 「奉使朝鮮唱和詩冊」이라 쓴 篆冠과 唱和詩 본체 및 淸나라 唐翰題와 羅振

玉이 쓴 跋文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冊題를 쓴 篆冠이 143 cm이고 수창한 본문이 1,376 cm, 跋文이 57,2 cm, 題篆과 본문, 본문과 발문사이의 여백이 23.8 cm로 전체길이는 1,600 cm이고 폭은 33.2 cm이다.

題籤은 「明倪文信公奉使朝鮮唱和詩卷」이라 쓰고, 이어서 小字로 “光緒乙巳重裝” “唐風樓藏”이라 쓰여 있어서 이 책이 光緒 31년(1905)에 改裝한 것이라는 점과, 唐風樓는 羅振玉(1866-1940)의 書室名이니 이 책이 나진옥의 舊藏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권은 明나라 翰林院侍講 倪謙이 景帝(1450-1457 재위)의 등극을 알리는 詔書를 가지고 조선에 온 세종 32년(1450) 윤정월 1일에서 2월 3일 다시 압록강에 이르는 1개월 간에 원접사인 鄭麟趾와 申叔舟·成三問 간에 唱和한 詩文을 추려서 엮은 것이다. 내용은 예겸의 雪霽登樓賦와 이에 차운한 신숙주의 和雪霽登樓賦 2편을 제외한 35편이 시이다. 모두 지은 사람이 自筆로 쓰고 圖書를 찍었다. 예겸의 작품이 16 題(17수)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숙주, 정인지 각 7편, 성삼문의 작품이 6편이다. 편차는 賦가 앞에 놓인 것을 제하고 詩는 모두 지어진 날자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이 詩卷에 수록된 詩들은 『皇華集』이나 『成謹甫集』·『保閒齋集』·『朴先生遺稿』·『東文選』 등에 수록된 글과 對校해 보면, 詩題와 본문에 약간씩의 異同이 산견되고 寓宿開城府有作에 대한 성삼문의 敬次高韻奉呈 등은 이들 문헌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예겸이 받은 시들을 가지고 귀국하여 선별하여 卷軸으로 장정한 것으로 짐작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것이다.

이 시권에는 시문의 찬자와 시권의 소장자의 圖書 수집 類가 날인되어 있다. 시문찬자로는 倪謙·靜存·倪謙之印·翰林侍講私印·詞垣載筆·東閣史官·倪氏子孫孫其永保之 등 예겸의 도서가 가장 많다. 예겸은 이처럼 다양한 도서를 사용한 데 비하여 鄭麟趾는 麟趾·河東鄭氏, 신숙주는 叔舟와 泛翁, 성삼문은 謹甫를 사용하는 등 1-2개의 도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이 책을 감정하고 수장한 사람이 사용한 도서로 陳驥德의 陳驥德所寶名跡, 唐翰題의 唐翰題審正, 나진옥의 松翁鑒藏 등이 있어서 이 책이 예겸의 자손에게 전해오다가 진기종과 당한제를 거

쳐서 다시 나진옥의 唐風樓로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권말에 추가된 1905년(高宗 光武9)에 쓴 발문²⁾에서 나진옥은 이 책이 嘉興唐氏에게서 입수한 것이라 한 것으로 보아 唐翰題의 舊藏本임을 알 수 있다.

이 詩卷과 별도로 1958년에 東濱 金庠基·斗溪 李丙燾·一山 金斗鍾·東州 李用熙·澗松 全鑒弼·東滄 元忠喜 6인이 이 책을 鑑定 하고 그 결과를 한 장의 韓紙에 漢文으로 작성한 鑑定記가 이 시권과 함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늦어도 1958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전언한 바와 같이 그 후 최근까지 靑溟 任昌淳 선생의 珍藏에 속해 있다가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이다.

3. 詩卷의 唱和者 들

2) 羅振玉은 이 詩卷을 1901년에 上海에서 唐翰題에게서 구하여 1905년에 개장한 후 제철을 쓰고 발문을 지었다. 이 발문은 현재 본 시권의 말미에 粘連되어 있다. 그는 52세 되던 1917년에 다시 明倪文僖公奉使朝鮮唱和詩賦卷跋의 제목으로 발을 지은 것이 그의 雪堂類稿에 보인다. 참고로 全錄하면 다음과 같다. “此卷, 可與唐鶴庵司馬 翰題 舊藏, 光緒辛丑(1901), 得之滬上. 計賦二首, 詩三十六篇, 文僖以外, 作者三人, 曰鄭麟趾, 曰申叔舟, 曰成三問, 皆當日朝鮮諸臣之爲館伴者也. 文僖使朝鮮, 以景泰元年正月朔 啓行, 閏正月返國, 當朝鮮宣慰王李祹之三十二年, 祹以是年二月薨. 文僖奉使時 祹已病 乃遣世子珣迎詔, 祹之卒, 文僖歸 未久也. 祹薨, 世子恭順王在位僅二年, 而世子恭憲王弘曄立, 又二年叔父惠莊王旻篡位 文僖之使, 正彼邦國勢岌危之時. 當日 館伴三人, 皆一時文學之彥, 且爲彼國重臣, 恭順之薨, 三人者實受顧命輔孺子, 乃惠莊之篡, 三問死事甚烈, 其大節表表可繼 武方正學, 而鄭申二人者, 乃佐惠莊潛故主, 致竄寧月暴死, 則二人實彼邦之賊臣也. 三人之作, 同登此卷, 可謂蘭鮑同車, 鸞 鴒接翼矣. 文僖集, 四庫著錄者三十二卷, 李西涯序載文僖所撰, 又有玉堂稿百卷, 上谷稿八卷, 歸田稿四十二卷, 南宮稿二十卷, 奉使朝鮮之作, 別爲遼海編, 今均佚不存. 此卷詩賦, 當具在遼海編中, 乃刊本已亡, 而手迹具載, 是可珍矣. 丁巳正 月十七日.(雪堂類稿 書畫跋尾).

3) 이 詩卷의 내용이 처음 알려진 것은 羅振玉이 『朝鮮紀事』와 함께 자신이 편집한 『玉簡齋叢書』(1910)에 수록한 것이 최초이고, 그 후 본 시권의 앞부분인 雪霽登樓賦를 사진판으로 찍어서 『朝鮮史』 15·제4권 제4권(제270 面)에 소개한 바 있다. 明使倪謙筆跡이라는 題名에으로 된 이 책의 書影에는 “『奉使朝鮮唱和詩冊』所收. 滿洲國 新京 羅振玉氏所藏”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서 이 책이 간행된 1938년 경까지는 나진 옥의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詩卷은 前言한 바와 같이 登極詔書의 전달을 위하여 조선에 입국한 明의 翰林侍講 倪謙과 집현전의 중심인물이며 당대를 대표하는 조선의 名流들인 鄭仁지·신숙주·성삼문 4인이 창수한 詩賦를 모은 것이다. 그들의 생애를 간략히 정리하는 것은 이 詩卷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倪謙(1415-1479)의 字는 克讓이요 別號는 靜存이다 조상은 浙江의 錢塘人인데 明나라 건국 초기에 京師의 上元으로 옮겨 살았다. 두 눈은 번갯불처럼 번득었고 풍채가 좋아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기억력이 비상하여 한번 본 글은 잊지 않았으며 應天府의 庠生시절부터 文名을 날렸다. 24세인 正統 戊午年(1438)에 鄉薦을 받아 이듬해인 기미년에 進士試에 甲科로 급제하여 翰林院編修에 임명되었다. 己巳년(1449)에는 35세의 나이로 景泰帝의 등극조서를 전하는 사명을 띠고 朝鮮에 입국하였다. 사신으로 와서는 시문을 지을 때 붓을 들고 즉석에서 지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景泰 연간에 直文華殿의 임무를 맡았을 때에는 황제의 고문에 응하여 時政에裨益하는 바가 많았고, 應製賦詩할 때에는 中官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려서 받아다 올렸다.

天順 初에는 學士로 승진하였고, 뿔혀서 春宮에 있던 憲廟의 進講을 담당하였다. 그후 45세 되던 기묘년(1459)에 順天府의 鄉試의 試官을 맡았을 때 權貴의 자제를 불합격시킨 관계로 무고를 받아 좌천되어 4년 동안 開平에서 보냈지만 태연 자약하게 詩酒로 自娛하니, 邊方 사람들이 어버이처럼 愛慕하였다. 1465년 憲廟가 즉위하자 舊職에 복직되었다. 禮部右侍郎으로 승진하였고, 南京禮部로 옮겼다가 尙書로 승진하였으나 신병으로 致仕하고, 1479년에卒하니 太子少保의 증직을 받고 文僖의 시호를 받았다. 皇命으로 城南의 新亭鄉에 장사지냈다 평소 德量이 寬洪하여 남과 다투는 일이 없었으며 교제함에 誠信한 태도를 견지하여 거짓이 없었다. 서적을 널리 읽어 閤中肆外하여 따를 자가 없었고, 勤敏嗜學하여 늙어서도 게으르지 않았으며, 才識이 超邁하여 하는 일에 適宜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중년에는 곤경을 치루었으나 만년에는 樞要의 직을 맡았다. 다만 文章으로는 海內에 이름을 날렸으나 經濟之效는 부한 감이 있다. 그러나 子孫이 揚名하여 南都의 第一

가는 名族이 되었다. 著書에 『玉堂稿』百卷·『上谷稿』八卷·『歸田稿』四十二卷·『南宮稿』十卷·『遙海編』四卷이 있다. 그러나 이 문집들은 화재로 일실되고, 남은 것을 모은 『倪文僖公集』과 『遙海編』이 전한다.⁴⁾

鄭麟趾(1396-1478)의 字는 伯睢이고, 호는 學易齋이며, 본관은 河東이다. 高麗 때의 첨의찬성사 鄭芝衍의 후손, 石城縣監 鄭興仁의 아들이다. 정흥인이 內直別監으로 있을 때에 昭格殿에서 재를 올리다가 집안을 일으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아내 陳氏가 임신하였을 때 특이한 꿈을 꾸고 인지를 낳았다. 5세에 글을 읽을 줄 알았고 한번 보면 곧 암송하고 글도 잘 지었다. 1411년 생원시에 합격했고, 1414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禮賓寺主簿가 되었고, 사헌부 감찰·예조 좌랑을 거쳐 병조 좌랑으로 전직하였다. 정인지는 중책을 맡길만하다는 태종의 추천에 따라 1421년에 병조정랑에 승진되었다. 이후 세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이조·예조의 정랑을 역임하였다. 1424년 集賢殿官에 뽑히면서 응교에 제수되고, 다음해 直殿으로 승진하였다.

1427년 文科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다시 직제학에 승진, 곧 세자시강원 좌필선을 겸대한 뒤, 다음해 통정대부에 오르면서 또다시 부제학에 승진되었다. 1430년에 嘉善大夫에 오르면서 右軍同知摠制가 되었고, 다음해에는 鄭招와 함께 大統曆을 개정하였으며 『七政算內篇』을 저술하는 등 曆法을 정비하였다. 그 후 여러 번 승진하여 禮曹·吏曹의 正郎과 集賢殿應敎에 전직되고, 이어 모친상을 당하였다. 세종이 바야흐로 문학을 숭상하여 經筵官을 엄선하였는데, 무신년에 특별히 起用하여 副提學 겸 經筵侍講官으로 삼았다. 경술년에 우군동지총제로 예문관제학·仁壽府尹·吏曹參判을 역임하였다. 당시 정인지의 아버지 鄭興仁이 老境으로 扶餘縣에 살고 있었는데, 정인지가 歸養을 희망하였으나 윤택하지 않다가 忠淸道觀

4) 예겸의 전기자료는 그의 명성에 비하여 전하는 것이 극히 적다. 그런 때문인지 『中國文學家大辭典』 등에는 그의 生沒年조차도 미상으로 되어있다. 본고의 기술은 焦竑의 『國朝獻徵錄』卷36. 陳鏞撰 南京禮部尙書諡文僖公諱傳과 그의 아들 倪岳의 倪文僖公集跋文, 그리고 倪岳의 大明勅封孺人亡妻盧氏墓誌銘(青溪漫稿 卷23)과 『懷麓堂集』卷四十二, 明 李東陽撰(文稿二十二 倪文僖公誄) 및 臺灣中央圖書館 편인 『明 人傳記資料索引』(北京, 中華書局, 1987)을 토대로 약술한 것이다.

察使로 제수하였다. 正統 병진년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세종이 부의를 특별하게 내렸고 무오년에 예문관제학에 제수하였다가 형조참판으로 옮겼다. 그후 鄭淵의 강력한 천거로 형조판서가 되었다. 그 후 예문관 대제학 · 의정부 우참찬 · 예조 · 이조 · 공조의 판서와 의정부 좌참찬을 역임하였다. 임신년에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제수되고 얼마 안되어 판중추원사로 전임되었다.

景泰 계유년에 世祖가 靖難 할 때 정인지가 大策을 參決 하여, 推忠衛社協贊靖難功臣의 位號를 받고, 河東府院君에 봉작되었다. 을해년에 세조가 즉위하면서 영의정에 승진되고, 同德佐翼功臣의 위호를 받았다. 병자년에 府院君으로 遞封되고 곧 이어 다시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天順 무인년에 부원군에 체봉되었다. 세조가 일찍이 정인지와 儒佛의 시비를 논란하다가 세조의 뜻에 거슬리 부여현으로 귀양갔었고, 한 달이 넘어 소환되어 다시 부원군에 봉해졌다. 成化 을유년에 나이 70세로 致仕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几杖을 하사하였다. 睿宗이 즉위하고 南怡가 謀逆罪로 伏誅되자, 定難翊戴功臣의 위호를 받았고, 成宗이 즉위하고는 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의 위호를 받았다.

欽定四庫全書懷麓堂集 卷四十二 明李東陽撰 文稿二十二 誄祭文

倪文僖公誄

정인지는 타고난 자질이 豪傑스럽고 英邁하며, 마음이 활달하고, 學問이 해박하여 두루 통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세종이 천문과 曆算에 뜻을 두어 그 대소의 簡儀·圭表와 欽敬閣·報漏閣의 제작에 있어서 다른 신하들은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세종이 말하기를, “정인지만이 이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하고, 명하여 모두 담당하게 하였다. 또 역대의 曆法에 밝았다. 그 외에 『資治通鑑訓義』·『治平要覽』·『歷代兵要』·『高麗史』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翰林侍講 倪謙이 詔使로 왔을 때에 정인지가 館伴이 되었다. 태평관에서 연회가 열렸을 때 정인지와 사신 예겸이 시를 주고 받으며 술을 마셨다. 이때 예겸이 정인지의 학식에 감탄하여 “그대와 나누는 하룻밤 대화가 10년 동안 글을 읽어서 얻는 소득보다도 낫다.”(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고 하였다.⁵⁾

정인지의 문장은 浩汗하고 發越하여 雕琢함을 일삼지 아니하였다. 오래도록 文

柄을 장악하여 高文大冊 등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시호는 文成 이다. 정인지는 성품은 검소하였으나 재산 늘리기를 좋아하여 田園을 널리 차지하였으므로, 당시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다.⁶⁾

申叔舟(1417-1475)의 자는 泛翁 이요, 호는 希賢堂, 또는 保閑齋 이며 본관은 高靈이다. 德麟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공조참판 檣이며 어머니는 知成州事 鄭有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氣量이 보통 아이들과 달라서 글을 읽을 때 한 번 보면 바로 기억하였다. 1438년(세종 20) 司馬兩試에 합격하여 동시에 생원·진사가 되었고 이듬해 親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典農寺直長이 되고, 1441년에는 집현전 부수찬을 역임하였다. 1442년 일본으로 사신을 보낼 때에 서장관으로 뽑혔다. 『訓民正音』창제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중국음을 한글로 표기하기 위하여 成三問과 함께 유배중이던 명나라 한림학사 黃瓚의 도움을 얻으려 요동에 수차 내왕하였는데, 황찬은 그의 뛰어난 이해력에 감탄하였다고 한다. 1447년 重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응교가 되고, 1450년(세종 32)에는 명나라 사신 倪謙 등이 당도하자 왕명으로 성삼문과 함께 唱和하여 東方의 巨擘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해에 掌令·執義를 거쳐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1452년(문종 2) 수양대군이 사문사로 명나라에 갈 때 서장관으로 다녀오면서 수양대군과의 유대가 이때부터 특별하게 맺어졌다. 1453년 승정원동부승지에 오른 뒤 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쳤다. 같은 해 수양대군의 靖亂에 輸忠協策靖難功臣 2등에 책훈되고, 이어서 도승지에 올랐다. 1455년 수양대군이 즉위한 뒤에는 同德佐翼功臣의 호를 받고 예문관대제학에 超拜되어 高靈君에 봉하여졌다. 이어 奏聞使로 명에 가서 세 왕의 誥命을 청하여 인준을 받아온 공으로 土田·노비·鞍馬·의복을 하사받았다. 1456년에 병조판서로서 국방에 필요한 외교응대의 일을 위임받아 사실상 예조의 일을 전장하게 되었다. 곧이어 判中樞院事가 되어 判兵曹事를

5) 『世宗實錄』권 127 世宗32年 閏正月 癸丑條 “議政府宴太平館 使臣北壁 議政在東 贊成以下在西 是夕, 使臣至館伴廳事. 鄭麟趾曰此王臣下此陋居, 榮感罔極 因相與從容談笑 且吟且酌 倪謙謂麟趾曰 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

6) 『成宗實錄』卷98 成宗9年11月 癸未條 河東府院君鄭麟趾卒記

겸하고, 우찬성이 되어서는 대사성까지 겸임하였다. 1457년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에 오르고 1459년에는 좌의정에 이르렀다. 1460년에 강원·함길도의 도체찰사에 임명되어 야인정벌에 나섰다. 그는 군사를 몇 개의 부대로 나누어 한꺼번에 진격하는 전략을 펼쳐 야인의 소탕에 공을 세웠다. 1462년에 영의정부사가 되고, 1464년에 지위가 너무 높아진 것을 염려하여 사직한 적이 있으며, 1467년에 다시 예조를 겸관하였다. 이듬해 예종이 즉위함에 遺命으로 院相을 맡아 서무를 參決하고, 같은 해 바 南怡의 옥사를 처리하여 翊戴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듬해 겨울에 예종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에게 後嗣의 택정을 서두를 것을 건의하여 大統의 승계에 공이 컸다. 성종이 즉위함에 佐理功臣의 호를 받고, 영의정에 다시 임명되었다. 1472년(성종 3)에는 『世祖實錄』·『睿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세조 때부터 작업을 해온 『동국통감』의 편찬을 왕명에 의하여 집에서 총관하였다. 또 세조 때 편찬하도록 명을 받은 『國朝五禮儀』의 개찬·刪定을 위임받아 완성시켰다. 여러 나라의 音韻에 밝았던 그는 여러 譯書를 편찬하였으며, 또 일본·여진의 산천 要害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海東諸國記』를 지어 일본의 정치세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일본과의 交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475년(성종 6)에 죽었다. 그는 사후 사육신·생육신을 추앙하는 道學的인 분위기에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당대에서의 그의 정치적·학문적 영향력은 큰 것이었다. 그는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송설체에 뛰어났다고 한다. 전하는 필적으로는 송설체의 유려함을 보여 주는 『夢遊桃源圖』의 贊文 등이 전한다. 시호는 文忠이다. 저서로는 『保閒齋集』이 전하는데, 1644년(인조 22)에 7세손 숙이 영주군수로 있을 때 교서관본 완질을 얻어 간행한 것이다⁷⁾. 신숙주는 일찍이 重望이 있어서 세종이 문종에게 “신숙주는 國事を 부탁할 만한 사람이다.” 하였고, 세조는 일찍이 “卿은 나의 魏徵이다.”라고 하였으며, 큰 일이 있을 때면 반드시 그에게 물어보고 처리하였다. 그러나 세조를 섬김에는 받들기만을 애썼고, 예종·세조에는 刑政이 공정하지 못하였는데도 匡救한 바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⁸⁾

7) 『保閒齋全書』附錄 年譜.

李泰鎮, 申叔舟(民族文化大百科事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成三問(1418-1456)의 자는 謹甫요, 호는 訥翁 또는 夏山樵夫이며 본관은 昌寧이다. 충청도 洪城에서 태어났다. 開城留后 石琚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판중추부사 達生이고, 아버지는 도총관 勝이다. 어머니는 현감 朴塾의 딸이다. 1435년(세종 17) 생원시에 합격하고, 1438년에는 式年文科에 정과로 급제했으며, 1447년에 文科重試에 壯元으로 다시 급제하였다. 집현전학사로 선발되어 세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면서 홍문관수찬·直集賢殿으로 승진하였다.

1442년에 賜暇讀書를 했고, 세종이 『訓民正音』을 제정할 때에 鄭麟趾·申叔舟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신숙주와는 세종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함께 명나라 요동을 수차 왕래하면서 명나라의 한림학사 黃瓚을 만나 音韻을 질정하였다. 또한 명나라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가서 음운을 연구하여 훈민정음을 제정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 1450년(세종 32) 명나라 翰林侍講 倪謙이 景泰帝의 등극조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정인지·신숙주와 함께 예겸과 唱和하여 명성을 날렸고, 특히 天下第一人物이라는 평을 받았다. 1453년(단종 1) 좌사간으로 있을 때, 首陽大君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皇甫仁 金宗瑞 등을 죽이고 스스로 정권과 병권을 잡고 그에게 靖難功臣 3등의 칭호를 내리자 이를 사양하는 소를 올렸다.

1454년에 집현전부제학이 되고, 예조참의를 거쳐, 1455년에 예방승지가 되었다. 그 해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위협, 禪位를 강요하자 國璽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였다. 이후 아버지 승의 은밀한 지시에 따라 朴仲林·박팽년·유응부·이개·유성원 등을 포섭하여 단종 복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던 중 1456년(세조 2) 6월에 세조가 상왕인 단종과 함께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하자, 그 날을 거사일로 정하였다. 그는 거사일 전날에 집현전에서 비밀회의를 열고 그의 아버지 승과 유응부 등 무신들에게는 세조와 尹師路·權曄·韓明澮를, 병조정랑 尹鈴孫에게는 신숙주를 각각 제거하도록 분담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중신들은 여러 무사들이 나누어 제거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김질(金鎬)에게는 그의 장인인 鄭昌孫으로 하여금 상왕 복위를 주장하도록 설득하라

8) 『成宗實錄』卷56 成宗6年 6月戊戌條 領議政申叔舟卒記.

하였다. 그러나 당일 아침에 갑자기 연회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별운검의 시립이 폐지되어 거사는 일단 중지되었다. 이에 거사는 세조가 친히 거동하는 觀稼 때로 미루어졌다. 이에 차질이 생기자 함께 모의했던 김질이 그의 장인 정창손과 함께 세조에게 밀고하여 모의자들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그 달 8일 아버지 승과 이개 · 河緯地 · 박중림 · 金文起 · 유응부 · 박쟁 등과 함께 군기감 앞에서 車裂刑을 당하였다. 그 때 동생 三聘 · 三顧 · 三省과 아들 孟瞻 · 孟年 · 孟終 및 갓난아이까지 모두 죽음을 당해 혈손이 끊겼다. 성삼문은 타고난 자질이 준수하고 文名이 높았으며, 조정의 經筵과 文翰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특히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끼친 공은 신숙주와 함께 가장 지대한 것이었다. 南孝溫은 六臣傳을 지어 대의를 위해 혼연히 죽음을 길을 택한 그의 높은 절의를 기록, 후세에 전하였다.

1691년(숙종 17) 伸寃 되고, 1758년(영조 34)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고, 1791년(정조 15) 『御定配食錄』에 올랐다. 莊陵의 忠臣壇에 배향되었으며, 영월의 彰節祠, 서울 노량진의 義節祠, 공주 東鶴寺의 肅慕殿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忠文이다. 저서로 『成謹甫集』이 있다.⁹⁾

4. 倪謙의 入國과 朝鮮의 應對

漢族 朱元璋이 元의 세력을 물리치고 明 나라를 세운 것은 1368년이다. 대개의 왕조가 건국 초기에 항상 그런 것처럼 명나라도 북방 민족과 끊임없이 충돌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선 대를 거듭하면서 환관이 세력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朱祈鑑이 9세의 어린 나이로 14350년에 즉위하니 이 사람이 正統帝이다. 자연히 황태자 시절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환관 王振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正統 13년(1448)에 북쪽의 오이라트의 也先이 조공문제를 빌미로 국경을 침범하자 병부시랑

9) 成三問, 『梅竹軒先生文集』卷 3-4 附錄.

李載範, 成三問(民族文化大百科事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于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진은 正統帝에게 親征을 권하였고 친정에 나선 황제는 이듬해인 1449년 7월에 土木에서 적의 포로가 되는 土木之變이 발생하였다. 명나라 조정은 황제가 포로가 되자 9월에 정통제의 이복동생 朱祈鈺이 황제로 즉위하니 이 사람이 景泰帝이다.¹⁰⁾

侍講學士 倪謙이 경태제의 등극조서를 반포하기 위하여 조선에 파견되어 명의 都城을 떠난 것은 경태제의 즉위년인 1449년 12월 13일의 일이다.¹¹⁾ 그는 이 使行에서 출발하면서 거의 매일 시를 지었는데 이를 편집한 것이 『遼海編』이다. 이 책의 권1-2에는 그가 도성을 떠나서 귀국할 때까지 지은 詩賦 28수와 文 8수가 수록 되어있고 권3에는 遼東에서 출발하여 다시 귀국할 때까지의 과정을 간략한 일기형식으로 쓴 『朝鮮紀事』(1권)가 수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奉使朝鮮唱和詩卷』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은 작품 중에서 정인지·성삼문·신숙주와 창화한 시의 원고를 권축으로 장정한 것이다. 따라서 『朝鮮紀事』와 『遼海編』·『世宗實錄』의 기사를 토대로 日別로 예검 일행이 거친 지역과 그의 詩作, 그리고 조선 정부의 이들에 대한 應待를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韓中 관계의 이해와 이 詩卷에 수록된 詩文의 창작배경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더구나 조선전기의 對明 使行路程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는 이 자료가 초기의 것에 속한다.

『朝鮮紀事』에는 예검이 요동을 출발하는 景泰 元年(1450) 1월 10일(병술)에서 시작하여 다시 요동에 돌아오는 2월 3일까지 50여 일간의 일정만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언한 바와 같이 『遼海編』권1에는 都城을 떠나는 날부터 지은 시가 있고, 거의 매일 시를 써서 그 詩題를 통하여 요동까지 이르는 27일 간에 경과한 지역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朝鮮紀事』에서 다루고 있는 정월 10일부터 조선의 왕성에 이르는 정월 29일까지 경과한 지역을 합하면 그가 거친 全路程을 알 수 있다. 이제 예검의 朝鮮使行 노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張廷玉 等, 『明史』卷第10 英宗前期. 同 卷第 11 景帝本紀

11) 倪謙, 『遼海編』卷之1 “出都城 與司馬黃門聯句. 時正統十四年 十二月十三日也.”

• 북경에서 遼陽까지(1449. 12 .13 - 1450. 1 .9) 27일간 .

北京 出發 → 通州 → 潞河驛 → 潞河 → 三河 → 錯橋 → 薊州 → 漁陽 → 陽樊驛
→ 玉田 → 永濟驛 → 豐潤 → 七家嶺驛 → 灤河 → 永平 → 蘆峯口驛 → 蘆峯 → 洋
河 → 榆關驛 → 榆關 → 海陽城 → 山海關 → 前屯衛 → 東關驛 → 曹庄驛 → 寧遠
湯泉 → 連山 → 凌河驛 → 小凌河 → 十三山 → 醫巫閭山 → 平洋橋 → 沙嶺 →
遼河 → 牛庄驛 → 海州衛 → 遼陽 .

• 遼東에서 漢陽까지(1450. 1 .10- 同 閏 1 . 1) 21일간.

遼東(1월 10일) → 高麗衝 → 頭館站 → 東嶺 → 浪子山(11일) → 背陰山 → 盤道
嶺 → 辛寨(12일) → 高嶺 → 連山 → 東山關東口 → 東關(13일) → 分水嶺 → 龍鳳山下
營(14일) → 龍鳳站 → 八度河嶺 → 草河口 → 鳳凰山下營(15일) → 開州站 → 東湯站
(16일) → 鴨綠江 → 義州義順館(17일 留, 18일 發) → 所申館 → 良策館(19일) → 車輦
館 → 林畔館(20일) → 雲興館 → 新安館(21 일) → 嘉平館 → 安興館(22 일) → 肅寧館
→ 安定館(23일) → 平壤府 大同館(24일) → 生陽館 → 黃州(25일) → 黃海道鳳山樓 →
龍泉館(26일) → 安城館 → 寶山館 → 金岩館(27일) → 義興館 → 金郊館 → 開城府(28
일) → 東坡館 → 原平府(29일) → 碧蹄館(윤정월 1일) → 慕華館 → 太平館.(윤 1. 1- 동
19일까지 20일 간 留宿.)

• 한양에서 요동까지(1450. 윤 1. 20 - 同 2. 3) 14일간 .

太平館(윤 1. 20 發) → 慕華館 → 松亭 → 碧蹄館(21일) → 東坡(接待 無) → 開城府
(22일) → 金郊館(接待 無) → 義興館(接待 無) → 金岩館(23 일) → 寶山館(接待 無)
→ 安城館(接待 無) → 龍泉館(24일) → 劍水(接待 無) → 鳳山館(接待 無) → 黃州(25
일) → 生陽館(接待 無) → 平壤府 大同館(26일) → 安定館(接待 無) → 肅寧館(27일)
→ 安州 安興館(28일) → 薩水 → 嘉平館(接待 無) → 新安館(29일) → 雲興館(接待
無) → 林畔館(30일) → 車輦館 → 良策館(2 . 1 일) → 所申館(接待 無) → 義州 義順館
(2일 在館中. 3일 發) → 鴨綠江.

요동에서 한양까지 입국시에 21일이 소요된데 비하여 출국에는 14일이 소요되어 1주일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입국시와는 달리 출국시에는 접대를 받지 않고 지나간 지역이 많다는 점과 행차의 속도를 조절한 데서 온 차이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인 日程은 다음과 같다.

1월 10일(丙戌). 遼東에서 출발. 都事가 東寧衛指揮 1員, 百戶 4員을 보내어 軍馬 200을 거느리고 호송하도록하였고, 鎮守都御使李純, 巡按御使劉孜, 左府都督守遼東都事王祥은 餞別宴을 열어주었다. 高麗衛·頭館站·東嶺을 지나 浪子山 아래의 民家에서 묵었다. 倪謙은 이날 曉發遼陽聯句·過高麗衛·頭館站道中·過東嶺·宿浪子山下人家 등 5편의 시를 지었다.¹²⁾

1월 11일(丁亥). 낭자산에서 출발하여 背陰山·盤道嶺을 지나 辛寨의 민가에서 묵었다. 이날 曉發浪子山12韻·過盤道嶺·過嶺看山·宿新寨人家 등 4편의 시를 지었다.¹³⁾

1월 12일(戊子). 신채에서 출발. 高嶺을 지나 東山關 東口에 이르러 묵었다. 東關은 華夷의 경계이다. 曉發新寨·登高嶺·宿連山 등 3편의 시를 지었다.¹⁴⁾

1월 13일(己丑). 東關에서 출발하여 分水嶺을 지나 龍鳳山 아래의 軍營에서 묵었다. 이 날 出東關·過分水嶺6首·望龍鳳山·龍鳳山下營 등 詩 9수를 지었다.¹⁵⁾

1월 14일(庚寅). 용봉산에서 출발하여 八度河嶺을 지나 鳳凰山 아래의 軍營에서 묵었다. 이날에 曉發行營·八度河嶺以東連度五嶺二首·午飯草河口·望鳳凰山 등 시 5首를 지었다.¹⁶⁾

1월 15일(辛卯). 鳳凰山에서 출발하여 開州站을 지나 東湯站에 이르렀을 때, 조선의주병마절제사 趙石岡이 通事 全滿吉里를 보내어 米酒를 보내왔다. 이날에 鳳凰山古城·過開州站·赴湯站六言四首·湯站道中 등 7편의 시를 지었다.¹⁷⁾

12)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丙戌條. 同書 卷1 第 15-17版

13)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丁亥條. 同書 卷1 第 17 -18 版

14)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戊子條. 同書 卷1 第 18-19版

15)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己丑條. 同書 卷1 第 18-19版

16)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庚寅條. 同書 卷1 第20-21版

17)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辛卯條. 同書 卷1 第21-22版

1월 16일(壬辰). 湯站에서 출발하여 義州城 밖에 이르니 趙石岡이 僚屬을 거느리고 와서 詔書를 맞이하여 義順館으로 들어갔는데, 朝服과 儀制는 명나라와 같았다. 왕이 호조판서 尹炯을 보내어 조서를 맞이하게 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平安右道首領官 羅弘緒·찰방 李養儉·의주판관 朴孟文·朝散大夫麟山郡事 宣炯·司譯院事 艾儉·護軍 梅佑가 동석하였다. 이날에 曉發湯站·過鴨綠江·至義州義順館 등 3편의 시를 지었다.¹⁸⁾

1월 17일(癸巳). 義順館에 머물렀다. 遼東에서 수행한 軍馬에게 酒飯과 行糧을 주고 回期를 정한 다음 되돌려 보냈다. 趙石岡이 연회를 열어 주었다.¹⁹⁾

1월 18일(甲午). 의순관에서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所串館에 이르니 定寧郡事가 연회를 열어 주었다. 다시 50리를 가서 良策館에 이르니 秦川郡事 李昉과 龍州郡事 高某가 연회를 베풀었다. 이날에 曉發義順·過古津江·宿良策館 등 3 편의 시를 지었다.²⁰⁾

1월 19일(乙未). 양책관에서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車輦館에 이르니 鍊山郡事 某가 宴會를 열었고, 다시 50리를 가서 林畔館에 이르니 통훈대부 定州牧使 洪益生·宣州郡事 吳仲宇가 연회를 열어주었다. 이날에 曉發良策·駐車輦館·過東林城·宿林畔館 등 4편의 시를 지었다.²¹⁾

1월 20일(丙申). 임반관에서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雲興館에 이르니 郭山郡事 崔潤玉이 연회를 베풀었고, 다시 50리를 가서 新安館에 이르니 隨川郡事 某와 博川郡事 鄭得孫이 연회를 열었다. 이날에 過東盧河·過雲興館·過堂於嶺二首·赴新安館 등 시 5수를 지었다.²²⁾

1월 21일(丁酉). 신안관에서 출발하여 70리를 가서 嘉平館에 이르니 嘉山郡事 某가 연회를 열었다. 50리를 더 가서 安興館에 닿았다. 왕이 예조참판 李邊을 보내어 문안하고 연회를 열었는데 盛粧한 女樂 30여 명이 두 줄로 나누어 樂器를 들고

18)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壬辰條 同書 卷1 第22版

19)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癸巳條

20)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甲午條 同書 卷1 第22-23版

21)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乙未條 同書 卷1 第23-24版

22)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丙申條 同書 卷1 第24版

堂에 올라왔다. 李邊이 이 女樂들은 王命에 따라 詔使를 즐겁게하기 위하여 京師에서 데리고 온 것이라 하므로 엄히 꾸짖어 물리쳤다. 宴會에 同席한 이는 평안도 도관찰사 韓確·安州牧使 朴以寧이다. 이 날 지은 시로 過達川·登嘉山嶺·過嘉平館·安興館席上卻女樂 등 4수가 있다.²³⁾

1월 22일(戊戌), 안흥관에서 출발하여 70리를 가서 肅寧館에 닿으니 肅川郡事가 연회를 열었다. 다시 60리를 가서 安定館에 닿으니 順安縣令 禹元球가 연회를 열었다.²⁴⁾

1월 23일(己亥), 안정관에서 출발하여 60리를 가서 西京 平壤府에 닿으니 평안도관찰사 韓確이 10여 리 밖까지 伶戲를 보내 맞이하였는데, 香亭·龍亭의 의장을 벌여놓고 풍악을 울리며 조서를 맞이하였다. 大同館에 도착하니 국왕이 사위 尹師路를 보내어 問安하고 詔書를 맞이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이날 倪謙은 平壤道中竹枝詞三首·至平壤府·宴大同館 등 5편의 시를 지었다.²⁵⁾

1월 24일(庚子), 西京에서 출발하여 60리를 가서 生陽館에 이르니 中和郡事 劉強과 咸從縣令 朴參이 와서 연회를 열었다. 다시 60리를 가서 황해도 黃州에 이르니 도관찰사 申自謹이 僚屬을 거느리고 조서를 맞이하였다. 香亭·龍亭·黃儀仗·鼓樂雜戲와 鰲山彩繡을 늘어놓은 것은 西京에서와 같았다. 왕이 判漢城府事 李孟畛을 보내와 문안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회회에 참석한 이는 豐川郡事 具仁寬·海州牧判官 金壤·黃州牧判官 尹期·長連縣監 崔涇이다. 왕이 예조정랑 安自立을 보내 詔勅과 賜物을 받는 儀注에 대하여 사신에게 묻도록 하였다. 국왕의 신병으로 世子가 國事를 대신 본 지 오래인데 이제 세자도 病으로 行禮할 수 없으니 王子가 代行하도록 하자는 논의에 대하여 세자가 병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23)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丁酉條 同書 卷1 第24-25版 예검은 이 使行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正統帝가 土木堡에서 포로가 된 상화에서 景泰帝가 등극한 시기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즐거운 일이 아니므로 왕이 내린 女樂을 물리친 것이다. 그는 이 일을 매우 의 미 있는 일을 한 것으로 여겨서 여러 곳에서 이 일을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安興公館盛張筵 雲鬟霓裳列管絃 姑射有神多綽約 廣漠無夢戀嬋娟 剛風吹散陽臺雨 烈日衝開洛浦烟 休把聲華汙耳目 此心元似廣平堅.

24)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戊戌條 同書 卷1 第26版

25)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己亥條 同書 卷1 第26-27版

일이니 병이 나올 때까지 1개월이라도 기다리겠다는 사신의 강경한 자세에 돌아가다. 이날 정사는 過大同江・駐生陽館・登黃州齊安樓 등 3편의 시를 지었다.²⁶⁾

1월 25일(辛丑), 黃州에서 출발하여 70리를 가서 鳳山郡에 이르니 行長湍縣監 李師鳴과 松和縣監 徐習이 宴會를 열었다. 30리를 더 가서 劍水館에 닿았다. 말에서 내리지 않은채 35리를 더 가서 龍泉館에 이르니 守瑞興都護府使 羅寅・載寧郡事 李伯倫・行康翎縣監 黃理軒이 연회를 열었다. 이날에 過黃海道・望海・登鳳山樓・至龍泉館 등 시 4편을 지었다.²⁷⁾

1월 26일(壬寅), 龍泉에서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安城館에 이르니 평산도호부사 柳陽植・谷山郡事 庾智가 연회를 열었다. 말 5백필을 明에 진헌하러 가는 공조참판 南佑良이 들렸다. 30리를 더 가서 寶山館에 이르니 遂安郡事張自息이 연회를 열었다. 30리를 더 가서 金岩館에 닿으니 新溪縣令이 연회를 열었다. 京畿道首領官 崔敬身・開城府都事 李克效가 문안하였다. 이날 曉發龍泉・赴安城館・駐寶山館・過平山嶺 등 4편의 시를 지었다.²⁸⁾

1월 27일(癸卯), 金岩에서 출발하여 30리를 가서 義興館에 行瓮津縣令 張希俊이 연회를 열었다. 30리를 가서 金郊館에 닿으니 우봉현령 奇效稔・兎山縣監 吳用旅가 연회를 열었다. 30리를 더 가서 개성부에 닿으니 경기도 도관찰사 朴仲林이 요속을 거느리고 조서를 맞았다. 왕이 사위 許正寧을 보내어 문안하고 연회를 열었는데 서울에서 데리고 온 女樂을 물리쳤다. 연회에는 개성부유수 李季隣・斷事官 余伯行・經歷 李師曾이 동석하였다. 왕이 漢城府尹 金何를 보내어 다시 세

26)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庚子條. 國王有病 朝廷亦知 世子病則予不知也 然則世子病幾何時爲何病 曰病腰疽 將一月矣 曰病將一月 則尹戶曹 正病中所遣 其初見江上時 何以不言有病 今始言病 詐也 母得因朝廷有事 輒懷二心 且瘡瘍之疾 膿潰則安 非若感傷奇證 不可以月 日期也 如果病疽 當已潰膿 如在此坐待 其愈始行 十日不愈 待半月 半月不愈 待一月 無不愈者 若再言不愈 詐可知矣 卽當捧詔還朝 奏聞朝廷 臣至朝鮮 國王世子 俱託病不出 無人受詔 因捧詔還 朝廷自有處置 自立聞謙言 驚愕無措 乃曰 望且徐行 不必坐待 小官卽便馳回啓白 星 夜來復 遂解去. 同書 卷1 第27-28版. 世宗實錄 卷127 世宗32年 1月丁酉條“遣禮曹正郎 安自立, 齎迎詔儀注黃州 問禮於使臣”.

27)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己亥條. 同書 卷1 第28版.

28)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壬寅條. 同書 卷1 第28-29版.

자의 病症을 말하고 조서를 맞는 儀註를 논의하였다. 이날 曉發金岩館遇雨雪二首・過義興館・至金郊館 등 4편의 시를 지었다²⁹⁾

1월 28일(甲辰). 개성부에서 출발하여 35리를 가서 東坡館에 이르니 양주도호부사 閔謹・朔寧郡事 金恕・臨津縣監 張有良이 연회를 열었다. 5리를 더 가서 임진강에 닿았다. 얼음이 녹아서 배를 타고 건너는데 尹炯과 朴仲林이 舟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 25리를 가서 原平府에 이르니 도호부사 柳規・行川寧縣監 韓繼徹이 연회를 열었다. 이날 至開城府・開城席上却女樂・渡臨津江尹戶曹朴觀察舟中設宴詩以答之二首 등 4편의 시를 지었다³⁰⁾

1월 29일(乙巳). 原平府에서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碧蹄館에 닿았다. 왕이 의정부좌의정 皇甫仁・左參贊 鄭椿・左副承旨 李季甸을 보내어 問安하고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는 楊州縣監 洪演이 동석하였다.³¹⁾

윤정월 1일(병오). 4경에 벽제관을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接官廳에 이르니 工曹와 관찰사가 小宴을 열었다. 새벽에 慕華館에 이르니 종친과 백관이 香亭・龍亭・黃儀仗・鼓樂雜戲를 갖추고 詔書를 맞이하는 禮를 행하고 入城하여 景福宮에 이르러 勤政殿에서 예에 따라 宣詔・受勅하였다. 禮를 마치자 世子와 殿의 동편에 친 幄中에서 相見茶話한 후에 太平館으로 물러나왔다. 王子 首陽大君瑀・安平大君瑑・臨瀛大君瑑・錦城君瑜・永膺大君琰・和義君璵・桂陽君璿・義昌君玠・漢南君・密城君琛・壽春君玟・翼峴君璵・永豐君琮과 百官이 방문하였다. 首陽이 王을 대신하여 宴會를 열었는데 수양과 正使가 동서로 나누어 앉았다. 연회 도중에 왕의 뜻으로 女樂을 쓰기를 요청하였으나, 사신이 쓸 수 없음을 말하고 앞서 却女樂詩를 써서 마치도록 하고 끝내 女樂을 받지 않았다. 이후로는 태평관에서 묵

29)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癸卯條“王又遣漢城府尹金何 來回復議禮事 言世子一國之本 自得病來 舉國遑遑 禱于山川鬼神以祈祐 豈敢虛詐 今瘡已潰膿 口尚未合 醫者云若牽動皮膚 必至引風復發 致傷性命 但望天使垂憫 乞免世子郊迎 容其扶病行禮受詔 則萬萬幸也 謙顧其辭情懇切 諒是實病 遂允其陳定與儀註而去”. 同書 卷1 第28-29版.

28)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甲辰條. 同書 卷1 第 29-30版.

31)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乙巳條.

世宗實錄』卷127. 世宗32年 庚午1月甲辰條“命左議政 皇甫仁禮曹判書許詡左副承旨李季甸 往迎使臣于碧蹄驛”.

었는데, 館伴은 工曹判書鄭麟趾·漢城府尹金何, 司庖膳官迎接都監判事洪某·唐夢賢·副使鄭有臨·尹處信·判官李禮長·林效善·趙克仁·通事官三軍副司職安至善·三軍司勇張義이다. 이날 赴王京 1首를 지었다.³²⁾

윤정월 2일(丁未), 왕이 좌승지 李宜治·영의정 河演을 보내어 문안하고 小宴을 베풀었다. 예검은 문안하는 이들에게 매번 書畫와 曆日을 선물하였다. 오후에 수양이 다시 연회를 열어 늦게야 파하였다.³³⁾

윤정월 3일(戊申), 국왕이 도승지 李思哲·예조참판 李邊 편에 皮襖·胡帽·의복을 보내고, 다시 中官을 보내어 庖羞를 보냈다. 이어 좌의정 皇甫仁을 보내어 문안하였다. 副使 司馬恂과 成均館에 가서 宣聖廟를 拜謁하였는데, 예조참판 李邊·공조판서 鄭麟趾·漢城府尹 金何가 함께 갔다. 이날 謁廟詩를 지었는데 정인지가 이에 대하여 次韻詩를 지었다. 예상치 못했던 정인지의 차운시를 받은 예검은 매우 당황했다. 이러한 정황은 『요해편』에 수록된 정인지에게 화답한 시의 小注에서 “<내가> 처음에 알묘시를 지은 것은 그들이 변방국가이면서도 문학을 숭상하는 것을 가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로 工曹가 宴席에서 화답하여 업신여기는 듯한 뜻이 있으므로 바로 화답하는 시를 지어 돌려주었다. 이때부터 그의 시에 화답할 때에는 모두 그의 시를 보자마자 즉시 화답하여 순식간에 지으니 비로소 모두들 <나의 솜씨에> 탄식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 때부터 문학을 매개로 한 양국 간의 자존심을 건 시문의 唱和가 있었고, 이러한 詩作은 거의 매일 이루어졌다. 중추원사 金效誠이 찾아와 연회를 열었다.³⁴⁾ 그리고 이날부터 성삼문·신숙주·孫

32)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丙午朔條·同書 卷1 第30版

33)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丁未條·同書 卷1 第30版

『世宗實錄』卷127. 世宗32年 庚午 閏1月丁未“命左承旨李宜治 問安于 太平館 領議政河演 亦問安 使臣曰 昨日宴慰 吾等盡醉 禮 當親謝而未果 願以此意啓殿下 倪謙 以書畫曆日 贈演等 每問安 必贈之…… 命首陽大君 代行翼日宴.”

34)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戊申條·同書 卷2 第1版. 鄭工曹見和卽席用韻以答題下注 “初作謁廟詩 本以嘉其夷而右文 也.意工曹席間吟和 似有陵騁意 隨和還之 自此 凡和其詩 俱觀罷卽答 頃刻而就 始皆驚服.”

世宗實錄』卷127. 世宗32年 庚午閏1月戊申“倪謙 賦詩一篇 贈鄭麟趾 麟趾卽次韻 自是 與麟趾三問叔舟 倡和無虛日”. 同書“命直集賢殿成三

壽山을 보내어 사신에게 韻書 를 질정하였다.³⁵⁾

윤정월 4일(己酉). 왕이 좌부승지 李季甸 · 우참찬 鄭甲孫을 보내어 문안하고 小宴을 열었다. 오후에 判漢城府事 李孟畛이 와서 設宴하였다. 이날에 答鄭工曹詩를 지었다.³⁶⁾

윤정월 5일(庚戌). 왕이 우승지 李師純 · 이조판서 李堅已를 보내어 問安하고 小宴을 열었고, 承文副知院事 申叔舟와 成三問이 惠刀를 보내와서 詩로 답하였다. 오후에 首陽大君이 王子들과 함께 와서 設宴하였다. 答鄭工曹詩를 지었다. 정사 倪謙이 玉帶 · 珊瑚 · 紗 · 紵紗와 瑪瑙條環 · 龍腦 · 龍骨 등 약재를 바쳤고 부사 司馬恂은 비단과 乳香 · 沈香 등 물건을 바쳤다.³⁷⁾

윤정월 6일(辛亥). 왕이 同副承旨 鄭而漢 · 左贊成 朴從愚를 보내어 문안하고 小宴을 열었고, 중관을 보내어 庖羞 를 보내왔다. 오후에 한성부윤 高得宗 이 設宴하였다. 答叔舟三問詩를 지었다.

윤정월 7일(壬子) : 왕이 우승지 李師純 · 좌참찬 鄭苯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고, 오후에 中樞院事 安進이 와서 設宴하였다. 答叔舟三問詩를 지었다. 정인지가 사신에게 占側法과 東海의 潮水에 대하여 물었다.³⁸⁾

윤정월 8일(癸丑). 왕이 좌승지 李宜治 · 예조판서 許詒를 보내어 문안하고 小宴을 열었고, 중관을 보내어 庖羞를 보내왔다. 오후에 영의정 河演이 좌의정 황보인 · 좌찬성 박종우 · 좌참찬 鄭苯 · 우참찬 鄭甲孫을 보내어 태평관에서 설연하였다. 정인지와 사신 예겸이 서로 시를 읊으며 술을 마실 때에 예겸이 정인지에게 “그대와 나누는 하룻밤 대화가 10년 동안 글을 읽어서 얻는 소득보다도 낫다.”(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고 감탄하였다.³⁹⁾ 이 날 雪霽登樓賦를 지었다.

問 應教申叔舟 奉禮朗孫壽山 問韻書于使臣”.

33) 『世宗實錄』卷127 世宗 32년 正月戊申.

36)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己酉條 · 同書 卷2 第2版.

37) 『世宗實錄』卷127 世宗32년 閏正月 庚戌條.

38) 『世宗實錄』卷127 世宗32년 閏正月 壬子條.

39) 『世宗實錄』권127 世宗32年 閏正月 癸丑條.“議政府宴太平館, 使臣北壁, 議政在東, 贊成以下在西 是夕, 使臣至館伴廳事, 鄭麟 曰此王臣下此陋居, 榮感罔極 因相與從容談笑 且吟且酌 倪謙謂麟趾曰 與君一

윤정월 9일(甲寅). 왕이 병조판서 閔伸·좌부승지 李季甸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고, 중관을 보내어 庖羞를 보내왔다. 이 날부터 식사 후에 매일 申叔舟가 案上에 書籍을 갖춰놓고 音韻의 疑義를 講校하였다. 오후에 한성부윤 高得宗이 設宴하였다. 성삼문이 부사에게 律文과 조정의 하례할 때의 절차에 대하여 물었다.

윤정월 10일(乙卯). 사신이 돌아가겠다고 인사하니, 왕이 예조참판 李邊·도승지 李思哲을 보내어 만류하니 더 머물기로 하였다. 이어서 호조참판 朴以昌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고, 오후에 慶昌府尹 鄭陟을 보내어 설연하였다. 有梅竹詩를 지었다. 사신이 贈行詩를 요구하였으므로 왕이 文臣들에게 지어서 2軸을 만들어 정사와 부사에게 각각 주도록 하였다.⁴⁰⁾

윤정월 11일(丙辰). 왕이 좌부승지 李季甸·형조판서 趙惠를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오후에 首陽大君이 왕을 대신하여 태평관에서 溫斟宴을 열었다. 사신이 宴席에서 안평대군에게 글씨를 받아 중국에 전하겠다고 하였다. 뒤에 수십 폭을 써서 주자, 매우 칭찬하고 중국에서 陳謙이 명필로 천하에 이름을 날리지만 適勁精彩함이 안평의 작품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였다.⁴¹⁾

윤정월 12일(丁巳). 왕이 이조참판 李審·우승지 李師純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중관을 보내어 庖羞를 보내왔다. 오후에 이조판서 李堅己·호조판서 尹炯·예조판서 許詡·병조판서 閔伸·형조판서 趙惠·공조판서 鄭仁지가 와서 設宴하였다.

윤정월 13일(戊午). 왕이 우부승지 金浣之·공조참판 李思任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오후에 中樞院副使 李昇平이 와서 설연하였다. 왕이 영접도감에 지시하여 사신에게 回賜할 물건의 적정량을 상의해 보고하도록 하였다.⁴²⁾

夜話, 勝讀十年書.”

40) 『世宗實錄』 권127 世宗32年 閏正月 乙卯條.“使臣求贈行詩, 命文臣製之, 爲二軸, 各贈之.”

41) 『世宗實錄』 권127 世宗32年 閏正月 丙辰條.“首陽大君 代行溫斟宴于太平館. 及安平大君行酒, 使臣曰 敢請妙筆, 傳諸中國. 後大君書數十幅, 令宗簿判官黃義軒 與使臣嘆賞不已曰 國朝陳謙 以書名天下, 適勁精彩 殊不及此. 眞得松雪翁之三昧者也. 各賦詩以謝. 松雪, 趙孟頫號也.”

42) 『世宗實錄』 권127 世宗32年 閏正月 戊午條.“上謂承政院曰 回賜使臣之物過優 則爲後日格例, 不可也. 若小則與 貿易之價有異, 亦不可也. 當與金何磨勘價數於私貿易之數, 斟酌商議以啓.”

윤정월 14일(己未). 왕이 도승지 李思哲 · 우참찬 鄭甲孫 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예조참판 李邊을 보내어 사신에게 漢江樓 놀이를 나갔다. 공조판서 정인지 · 한성부윤 金和 · 知院 申叔舟 · 成三問과 迎接都監의 여러 관리들이 배행하였다. 都監의 관리들이 扁額에 써서 걸 시를 요구하여 즉석에 詩 三章을 지었다.

윤정월 15일(庚申). 왕이 우승지 李師純 · 예조참판 이변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安平大君 李瑬이 宗簿判官 黃義軒을 보내어 字書를 보냈으므로 시를 지어 보냈다. 判漢城府事 李孟畛 이 와서 設宴 하였다.

윤정월 16일(辛酉). 왕이 좌부승지 이계전 · 판한성부사 이맹진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신숙주가 찾아와 紙筆墨을 주었으므로 시를 지어 답하였다. 楊花渡 나루에 놀이를 나갔다. 왕이 미리 도승지 이사철 · 병조판서 閔伸 을 보내어 연회를 열었다. 席上에서 詩 一章을 지었다. 배를 타고 喜雨亭에 이르러 다시 詩 一章을 지었다.

윤정월 17일(壬戌). 왕이 우부승지 金浣之 · 형조판서 趙惠를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이어서 중관을 보내어 庖羞를 보내왔다. 오후에 中樞院事 李先齊가 와서 設宴하였다. 漢江游記 를 지었다.

윤정월 18일(癸亥). 왕이 도승지 李思哲 · 좌참판 鄭苯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오후에 왕을 대신하여 수양대군이 諸王子와 태평관에서 設宴하고 餞別宴을 열었다. 왕이 예조참판 이변을 보내어 공식적인 回禮品으로 예겸에게 麻布 2백 43필과 인삼 1근을 주고, 이와 별도로 布 30필, 인삼 20근, 석등잔 2개, 滿花席 5장, 厚紙 6권을 주고, 부사에게는 回禮品으로 布 35필과, 별도로 布 30필, 人蔘 20근, 석등잔 2개, 만화석 5장, 厚紙 6권을 주니, 사양하다가 받았다. 世子가 詹事 李蓄을 보내 布 20필과 厚紙 8권을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중부시 판관을 통하여 대군과 諸君의 回禮品으로 예겸에게 布 10여 필을 주었다. 부사는 贈物이 없으므로 회례품도 없었다. 예겸이 일찍이 書畫와 曆日 등의 물건을 대신과 館伴 및 通事 등에게 나누어 주었으므로 인삼과 搨扇 · 油芭 등을 주었다.⁴³⁾

43) 『世宗實錄』 권127 世宗32年 閏正月 癸亥條

윤정월 19일(甲子). 왕이 도승지 李思哲·이조판서 李堅己를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오후에 중추원사 安進이 設宴하였다. 왕이 사신이 요구한 石燈臺을 한 개씩 주도록 지시하고는 “사신이 비록 선비로서 이름을 얻었다 하나, 실은 욕심쟁이로다.”고 하여 사신의 탐욕을 비판하였다. 예겸은 위인이 多才放曠하여 도중에 題詠 한 시가 수십 편인데, 모아서 책자로 만들어 태평관에 내걸게 하고, 자신이 지은 登樓賦를 써서 다락에 걸게 하니 사람들이 그 재주를 믿고 교만하고 뽐내는 것을 비판하였다. 예겸 등이 처음에는 보내 준 물건을 받지 않다가 뒤에 가서는 받았고, 끝에 가서는 이처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⁴⁴⁾

윤정월 20일(乙丑). 왕이 좌부승지 李季甸·호조참판 朴以昌을 보내어 문안하고 소연을 열었다. 연회가 끝난 후 왕성을 출발하였다. 왕을 대신하여 慕華館에서 수양대군이 왕자들과 함께 미리 宴席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席上에서 詩 1수를 지었다. 백관이 전별하였고, 松亭에 이르니 영점도감의 관리들이 餞別宴을 열었으므로 詩 1수를 지었다. 늦은 시간에 벽제관에 이르니 왕이 미리 좌의정 皇甫仁·예조판서 許誦·우부승지 김완지·도승지 이사철·예조참판 李邊을 보내어 설연하였다. 陪行者는 金和·申叔舟·成三問 이다.⁴⁵⁾

윤정월 21일(丙寅). 碧蹄에서 출발하여 東坡를 지나 늦게 開城府에 도착하였다. 왕이 미리 光德大夫 鄭孝全을 보내어 設宴하였는데, 京畿道都觀察使 朴仲林이 侍宴하였다. 이날 開城寓宿詩를 지었다.⁴⁶⁾

윤정월 22일(丁卯). 개성에서 출발하여 金郊·義興金을 지나 金岩에 이르러 設宴하였다.⁴⁷⁾

윤정월 23일(戊辰). 金岩에서 출발하여 寶山·安城을 지나 龍泉에 도착하였다. 尹中官의 분묘에 치제하고 돌아와 연회를 열었다.⁴⁸⁾

44) 『世宗實錄』 권127世宗32年 閏正月 甲子條

45) 倪謙, 『遼海編』卷3「朝鮮紀事」閏正月 乙丑條

46) 倪謙, 『遼海編』卷3「朝鮮紀事」閏正月 丙寅條

47) 倪謙, 『遼海編』卷3「朝鮮紀事」閏正月 丙寅條

48) 倪謙, 『遼海編』卷3「朝鮮紀事」閏正月 戊辰條

윤정월 24일(己巳). 용천에서 출발하여 劍水·鳳山을 지나 黃州에 이르니 왕이 미리 광덕대부 尹季童을 보내어 연회를 열었다. 黃海道都觀察使 申自謹이 侍宴하였다.⁴⁹⁾

윤정월 25일(庚午). 황주에서 출발하여 生陽을 지나 평양부 大同館에 이르니 왕이 미리 光德大夫 韓槐을 보내어 연회를 열어주었는데, 平安道都觀察使 韓確이 시연하였다.⁵⁰⁾

윤정월 26일(辛未). 평양에서 출발하였다. 城中에서 宣聖·檀君·箕子의 4 廟를 참배하였다. 사당은 모두 木主였다. 이날에 謁箕子廟詩를 지었다. 城西로 나가 箕子廟를 참배하였다. 謁廟詩를 지었다. 安定을 거쳐 肅寧에 이르러 宴會를 열었다.⁵¹⁾

윤정월 27일(壬申). 肅寧에서 출발하여 安州 安興館에 이르니 왕이 미리 공조판서 정인지를 보내어 設宴하였는데, 안주목사 朴以寧이 시연하였다. 공조판서 정인지가 시를 지어 작별하므로 즉시 화답하였다. 신숙주·성삼문도 和詩를 지어 주기에 즉시 화답하였다.⁵²⁾

윤정월 28일(癸酉). 安州에서 출발하였는데 정인지와 박이녕이 배를 준비하여 함께 薩水를 건넜다. 주중에서 置酒하고 시를 지어 주어 기념을 삼으니 공조가 화답하고 작별하였다. 정오에 博川에 이르러서 成三問이 다시 和詩를 지어주므로 즉시 화답하였다. 嘉平을 지나 新安에 이르러 宴會를 열었다.⁵³⁾

윤정월 29일(甲戌). 新安에서 출발하여 興海를 지나 林畔에 이르러 宴會를 열었다. 이날 孝女四月詩를 지었다.⁵⁴⁾

윤정월 30일(乙亥). 林畔에서 출발하여 車輦을 지나 良策에 이르러 設宴하였다.⁵⁵⁾

49)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 己巳條.

48)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 庚午條..

49)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 辛未條..

50)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 壬戌條.

53)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 癸亥條.

54))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 甲戌條.

55)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閏正月 乙亥條.

2월 1일(丙子朔). 양책관에서 출발하여 義州 義順館에 이르니 의주병마절제사 趙石岡이 찾아와 設宴하였다. 遼東軍馬가 迎接을 나왔다.⁵⁶⁾

2월 2일(丁丑). 의순관에서 趙石岡이 設宴하고, 遼東軍馬에게 酒飯과 行糧을 주었다. 이날 留別金和叔舟三問詩를 지었는데 몇편의 往復和答詩가 있다.⁵⁷⁾

2월 3일(戊寅). 의순을 출발하여 鴨綠江에 이르자 趙石岡이 강가에서 設宴하고, 叔舟가 賦詞를 지어 작별하므로 즉석에서 和答하였다. 연회가 끝난 후 배에 올랐다.⁵⁸⁾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에 입국한 예겸 일행의 조선에서의 활동과 조선의 응대는 요동에서 한양에 입성하는 1월 10부터 1월 29까지와 한양에서 보내는 윤정월 1일에서 윤정월 20일까지의 시기, 그리고 漢陽에서 귀국하는 윤정월 21일부터 2월 3일 압록강을 건너기까지의 3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제 위의 일정별 기사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使臣에 대한 宴會와 예물의 교환 및 詩文의 唱和와 토론을 통한 학술적 교류의 세 측면에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宴會를 개최하는 횟수와 규모는 입국시와 한양 성중, 歸路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입국할 때의 사신의 접대는 원접사로 파견된 호조판서 尹炯이 義州의 義順館에서 연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1日 2宴, 즉 하루에 2회씩의 연회를 열어주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하루 일정 중 거치는 客館이 2곳인 경우는 2회를 열었고, 3개인 경우는 3회(1월 26일, 27일)의 연회를 열고 있다. 입국할 때 거친 객관이 모두 28 개소이니 28회의 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선위사가 파견되는 義州·安州·平壤府·黃州·開城府의 다섯 고을은 왕의 副馬를 비롯한 2품관들이 파견되었고 연회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외의 연회는 주로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주최하였다.

56)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 二月 丙子條」

57)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 二月 丁丑條」

58) 倪謙, 『遼海編』卷3 「朝鮮紀事 二月 戊寅條」

漢陽에서의 연회도 기본적으로는 1일에 2회의 宴會를 베풀었다. 그 가운데서 오전의 연회는 小宴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규모가 작았다. 오전의 연회는 매일 왕명을 받은 신하가 주최하고, 오후의 연회는 世宗과 世子가 주최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병중에 있었던 관계로 수양대군이 대행하였고, 제왕자와 議政府·六曹·漢城府 등의 고관들이 돌아가면서 열었다. 귀국길에 오른 사신의 연회는 앞의 경우와 달리 1日 1宴만 열어서 입국할 때의 개최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선위사가 파견되는 義州·安州·平壤府·黃州·開城府의 다섯 고을을 제외하면 주최자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입국시의 연회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禮物이라는 형식을 빌린 상품의 교류가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중국측이 조선측에 준 것으로는 정사 倪謙이 바친 玉帶·珊瑚·紗·紵紗와 瑪瑙條環·龍腦·龍骨 등의 약재와 부사 司馬恂이 바친 비단과 乳香·沈香 등이 있다. 이외에 정사 예겸은 태평관으로 문안 오는 이들에게 書畫와 曆日을 선물하였다. 그가 선물한 책 중에는 『詳說古文眞寶大全』이 들어 있었고, 이 책은 즉시 庚午字로 活印 流布되면서 讀書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조선에서 받아간 것은 그들이 바친 예물에 대한 回禮品을 들 수 있다. 공식적인 回禮品으로는 正使 예겸에게 麻布 2백 43필과 인삼 1근과 비공식적으로 준 것은 布 30필·인삼 20근·석등잔 2개·滿花席 5장·厚紙 6권이다. 副使에게 주는 공식적인 回禮品은 布 35필이고 비공식적으로 준 것은 布 30필·人蔘 20근·석등잔 2개·만화석 5장·厚紙 6 권이었다. 世子가 사신에게 준 것은 布 20필과 厚紙 8권인데 나누어 가지도록 하였다. 대군과 諸君이 주는 回禮品은 예겸에게만 布 10여 필을 주었다. 이는 부사의 경우 贈物이 없었으므로 회례품도 주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예물의 교환에는 주고 받는 물건을 양과 가격의 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었다.

중국의 사신이 받아간 물건 중에는 중국에 전하겠다고 요청하여 받아간 안평대군의 글씨와 贈行詩가 있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예겸의 평에 의하면 ‘趙孟頫의 서체를 얻어 適勁精彩함이 陳謙의 필치보다도 뛰어나다’고 극찬하였다. 증행시는 문

신들에게 지어서 卷軸으로 만들어 준 것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詩卷과는 별개의 것이다.⁵⁹⁾

셋째로 兩國間의 使臣의 交流는 明나라 使臣과 조선의 學士들 간의 詩文의 唱和와 토론을 통한 학술적 교류의 장이었다. 正使 倪謙은 조선에 사신으로 往還하는 동안에 근 300 편에 이르는 詩文을 지었고 漢陽에 머무르는 동안과 歸路에는 정인지를 비롯한 신숙주·성삼문과 창화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가 自作詩의 小注에서 “<내가> 처음에 알묘시를 지은 것은 그들이 변방국가이면서도 문학을 숭상하는 것을 가상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로 工曹(정인지)가 宴席에서 화답하여 업신여기는 듯한 뜻이 있으므로 바로 화답하는 시를 지어 돌려주었다. 이때부터 그의 시에 화답할 때에는 모두 그의 시를 보자마자 즉시 화답하여 순식간에 지으니, 비로소 모두들 <나의 솜씨에> 탄식하였다.”고 한 것은 조선의 정인지의 詩文의 수준이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는 솔직한 고백임과 동시에 시문의 唱和가 문학을 매개로 한 그저 한가한 놀이가 아니라 문화적 자존심을 건 한 판의 중요한 경쟁분야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신과의 應對 과정은 성삼문·신숙주·孫壽山을 보내어 사신에게 韻書를 질정하였거나 정인지가 占惻法과 東海의 潮水에 대하여 물은 것, 申叔舟가 音韻의 疑義를 講校한 것, 성삼문이 律文과 조정의 하례할 때의 절차에 대한 질의 등 다방면에 걸쳐 質疑應答이 이루어지는 학술적 교류의 마당이었다.

그러나 사신이 한양에 들어온 지 8일 째가 되는 날에 태평관에서 정인지와 예겸

59) 倪謙, 『遼海編』卷之四 朝鮮贈言. 이때 예겸이 받아간 贈行詩軸에 수록된 내용은 序 2수 · 詩 27수 · 跋 1수이다. 필자는 序(申叔舟)와 詩(晉陽 河演·晉陽 鄭陟·河陽 許詡·河東 鄭麟趾·伯睢·大丘 徐居正 剛中·西原 韓繼禧·晉山 姜孟卿·光山 李先齊·魯山 李永瑞·坡平 尹炯·圓山 高得宗·咸從 魚孝瞻·昌寧 成念祖·蘭溪 朴堧 坦夫·陽城 李芮·韓山 李季甸 屏甫·東萊 鄭昌孫·完山 李思哲·丹溪 河緯地 仲章·平陽 朴彭年·嶺梁 崔恒·牙山 金鉤·驪江 李審·延安 李石亨 伯玉·鷺山 辛碩祖·韓山 李塏·陽城 李承昭)와 後序(成三 問)과 跋(臨郡 習嘉言)이다. 그러나 그 原軸의 소재는 알 수 없다.

이 서로 시를 읊으며 술을 마시다가 예겸이 “그대와 나누는 하룻밤 대화는 10 년 동안 글을 읽어서 얻는 소득보다도 낫다.”(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고 감탄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조선 문사 정인지의 讀書의 양과 그 수준이 明朝의 뛰어난 문인화자인 예겸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5. 詩卷의 全文과 對校

이 『奉使朝鮮唱和詩卷』에는 倪謙과 鄭麟趾·申叔舟·成三問이 1450년(세종32) 윤정월 1일에 漢陽에 入城하여 2월 3일에 압록강을 건너기 이전에 외교의 현장에서 唱和한 詩賦 37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권에는 예겸이 使行에서 지은 詩 가운데에서 조선의 名流인 정인지 등 3인과 唱和한 것만을 같은 紙地에 각자의 筆致로 쓴 것을 모아 장정한 관계로 시문의 내용과 함께 명류들의 眞跡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준다. 기왕에 이 시의 대부분이 『遼海編』·『皇華集』·『玉簡齋叢書』·『保閑齋集』·『成先生遺稿』 등에 수록되어 있지만 傳寫 또는 간행 유통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수정과 문자의 誤脫로 인하여 讀解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제 原稿를 장책한 본 詩卷과 근자에 처음으로 影印 公刊 된 『遼海編』을 중심으로 『皇華集』·『玉簡齋叢書』·『保閑齋集』·『成先生遺稿』과 對校하여 본 시권을 읽는 이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校記에 사용된 약호는 ① 遼海編 ② 皇華集 ③ 玉簡齋叢書 ④ 保閑齋集 ⑤ 成先生遺稿 이다.>

奉使朝鮮唱和詩卷

題 簽：明倪文僖公奉使朝鮮唱和詩卷 光緒乙巳重裝 唐風樓藏

篆 額：奉使朝鮮唱和詩冊 徵仕郎中書舍人直文淵閣南昌王淑安 篆冠

1. 雪霽登樓賦 有敘

予1)與 黃門給事司馬先生2) 奉使朝鮮 寓于太平館3) 館後有樓可眺 時景泰初元後正月七日 晨鋪散步 積雪始霽 先生偕予4)而登焉 縱目之餘 遂召管城子用紀一時之勝 雖不敢廁上林之子虛 亦不可方南樓之放逸也 昔南國諸侯 被文王之化 其仁民之餘 恩有以及於庶類 詩人賦騶虞以美之 予5)於此 必歸恩於朝廷者 乃詩人之遺意也 覽者 尚以是求之 賦曰

維聖皇之御極 頒正朔於八荒 睠東藩之有國 限衣帶以相望 羌盡忠而盡禮 時來享而來王 宜優異以加賚 錫九重之詔章 爰命詞臣 皇華遣行 乃度馬皆載 6)經樂浪 泛星槎於蒼海 駐使節7)於華陽 謹昭宣乎帝制8) 暫假憩於公堂 有樓巋然 規度 9)翼翼 畫棟暈飛 雕闌10)矢棘 納夜月於璇題 灑春雲於赭壁 透鮮麗而不礙 矗層霄以獨立11) 信黃鶴之可招 想翠微之堪挹 暢浩懷以舒寫12) 掬洪濤而澌濯滌13) 時當三春14)初孟 六雪始晴 屏翳開顏 羲和耀晴精15) 於是司馬先生 拉予16)躡重階攀兩楹 倚曲檻17)臨危巖 覽冰壺於天地 望瑤島 18)於蓬瀛 壯三韓之偉觀 豁萬古之幽情 酒若近接几席 則蒼髯怒張19) 老鱗皴剝 儼玉龍20)之競飛 訝驪珠之鬪攫 遠環戶闔 則粉黛參差 琪林錯落 瑩萬瓦之積素 皎千門之凝堊 以言乎山也 則北嶽後聳 宮殿增輝 南峯前峙 城郭四圍 峻壁蜿蜒以西慕21) 連嶂邈迤而東馳 以言乎水也 則開川汨濤22) 銀虹下垂 漢江蕩潏 渤澥攸歸 寧長養於魚鼈 允流潤於町畦 彼其六寺七監 23) 庶府諸司 鼓鍾麗譙 爭雄24)聘奇 紛鷄犬之相聞 驗政教之所施 嘒吟賞之靡既 25) 不知身之居於九夷也26) 先生顧余而咲27)曰 子解斯景之可賞28) 當求斯雪之所自 宣豐年之休徵 由上天之明賜 於維聖皇 德合乾坤 以和召和 淑氣氤氳 致雨暘之時若 廣率育於蒸民 溥靈雩於宇內 溢餘波於海濱 顧箕封之康畀 29) 孰非我皇之渥恩也 余聞之30) 乃31)擊節而爲之歌曰 層構之崇兮 32) 結製之精 褰裳往登兮 極目瑤瓊 餘澤漸被兮 自帝京 熙熙樂土兮 民物阜成 稱藩東服兮 荷大平 33) 千秋萬春兮 固屏翰於皇明

賜進士及第翰林侍講承直郎朝鮮正使錢唐倪謙著34)

【校記】1) 予：②作余。2) 黃門給事司馬先生：②作黃門司馬先生。3) 寓于太平

館: 主節太平館. 4) 予: ②作余. 5) 予: ②作余. 6) 乃度馬訾載: ②作迺渡馬訾載. 7) 駐使節: ②④作弭使節. 8) 謹昭宣乎帝制: ②④作謹宣昭乎帝命. ③作謹宣昭乎帝制. 9) 規度: ②④作規制. 10) 雕闌: ②④作雕欄. 11) 矗層霄以獨立: ②④作疊層霄而獨立. 12) 暢浩懷以舒寫: ②④作暢浩懷之舒瀉. 13) 澣濯滌: ②④作浣滌. 14) 時當三春維孟: ②④作茲當三春初孟. 15) 羲和耀晴: ②④作羲和耀精. 16) 粒予: ②④作拉余. 17) 倚曲檻: ④作俯曲檻. 18) 瑤島: ②④作瓊島. 19) 怒目: ④作怒目. 20) 玉龍: ②④作玉虬. 21) 西慕: ②作西慕. ④作西驚. 22) 汨瀟: ②④作縈繞. 23) 六寺七監: ②④作五監六寺. 24) 爭雄: ②④作爭高. 25) 嘅吟賞之靡既: ②④作慨吟賞之未既. 26) 九夷也: ④無也字. 27) 顧予而咲: ②作顧余而笑. ④作顧余而嘆. 28) 可賞: ④作可玩. 29) 箕封之康昇: ②④作箕封之藩庶. 30) 予聞之: ②④作余聞之. 31) 乃: ②④作迺. 32) 層構之崇兮: ④無兮字. 以下同. 33) 荷大平: ②④作席太平. 34) 賜進士及第翰林侍講承直郎朝鮮正使錢唐倪謙著: ①④全無, ②翰林下有院字, 承直郎朝鮮5字無, 著作纂.

1-1. 和雪霽登樓賦1)

新天子卽位 覃恩內外 於是 翰林倪先生2) 奉詔至弊邦 景泰初元後正丙午也 越六日壬子 登賓館之後樓 屬春雪之乍晴 俯仰抒懷 迺3) 援筆賦之 筆勢縱橫 氣像磅礴 出入乎三閭 凌轢乎兩都 眞罕世之傑作也 叔舟鉛槧末技 幸奉杖屨 得奔走於下風 挹清論之餘緒 而傳聞於未聞之口者 蓋亦多矣 輒4) 不揆孤陋 敢踵二蘇和歸來之辭 掇拾荒蕪 強續高韻 非敢爲賦 聊表景仰不能自己之意云耳 5) 賦曰

翰林先生 學究天人 胸吞四荒 冰霜雅操 圭璋令望 却紛華而味道 斥偏霸6) 而談王 承新命於九重 歷薊遼而周章 至下國而駐節兮 拜後塵於趨走之行 曰7) 或清而或濁兮 顧將不遺於滄浪 接談咲之芬芳兮 蹇8) 有脚之陽春9) 坐深井而觀天兮 敢求門而窺堂 日陪侍乎游衍兮 瞻盛儀之趨翼 發言而成章兮 剖美玉於垂棘 登高樓以10) 作賦兮 分餘光於東壁 方騁奇而湊怪兮 盲風颯而11) 海立 及隱約以鉤微兮 羌沖澹

之可挹 飄餘思於天外12) 搜幽腸而蕩滌 鑿混沌之元竅兮 忽雰翳之朗晴13) 初緯繡其鬬角兮 卒同歸於玄精 維變化之叵測兮 實騷家之棟楹 方其嘯詠徙倚 俯臨朱蕙與大化以透蛇14) 發遐想於蓬瀛 值膝六15)之效技16) 溢乘興兮攄情 揮瓊管以紀勝兮 討玄機於落剝 媚嬌態之嬋娟 17) 憑怒虬之呀攫 畜黃氣象於沆瀣18) 收大用於濩落 心與手其相應兮 運郢斤而盡聖 扈江離19)以紉蘭兮 集芳芬20)以流輝 覃余懷之冥搜兮 俄再撫於九圍 學海汪洋而莫之涯兮 獵古今而交馳 託雅意於華作 21) 名萬古兮昭垂 殷景仰乎高山兮 微先生吾誰與歸 傾余蓋其若舊兮 絕中心之町畦 飲醇醪不覺醉兮 遺耳目之所司 粵余慕金陵之識難兮 就子雲而問奇 固陋質之難化兮 効捧心於東施 顧微末之不自量兮 庶榛蕪之芟夷 遡餘波而上之 求厥源之奚自22) 益見所未見23)兮 亦夫子之所賜 安得紐弄闔闢24)揣摩乾坤 存至道於目擊 妙通25)契於氤氲 辨魚魯而復正 開菅瓚26)於吾民 使出日之域27)東海之濱 同文一軌 而永固我聖天子之鴻恩也哉28) 亂曰 文章之富博而精兮 擲地金聲佩琚瓊兮 維山29)維斗莫之京兮 駕楚驅漢30) 而大成兮 手扶天章文昇平兮 燭火日出 難爲明兮

高陽申 叔舟拜手

【校記】1) ①作奉和前賦。②作次韻。③作前題。④作和雪霽登樓賦。본 詩卷에는 어떠한 제목도 없이倪謙의 賦에 이어 서 쓰여있다. 2)倪先生：②④作先生。3)迺：④作乃。4)輒：②④無輒字。5)耳：②④作爾。6)霸：③作霜。7)曰：①④無曰字。8)蹇：②作蹇。9)陽春：①②④作春陽。10)以：④作而。11)而：②作其。12)外：④外字下有兮字。13)晴：④作清。14)透蛇：③作透迤。④作委蛇兮。15)膝六：②作膝陸。16)技：②技下有兮字。17)嬋娟：娟下有兮字。18)沆瀣：②瀣字下有兮字。19)江離：②④作江籬。20)集芳芬：①作挺芳芬。④作集芳芬。21)華作：④作下有兮字。22)奚自：④作所自。23)益見所未見：②作益見其所未見。④作益自見其所未見。24)闔闢：④作闢闢。25)妙通：①②③作通妙。26)菅瓚：④作盲聾。27)出日之域：④作日出之域。28)也哉：②④無哉字。29)維山：④山下有與字。30)駕楚驅漢：②作駕楚馳漢。④作駕漢馳楚。

2. 予與黃門司馬先生 奉使至朝鮮之三日 偕往成均館拜謁宣聖 升堂觀禮 喜而有作 錄似同行諸君子⁶⁰⁾

曉向成均謁廟堂 杏壇弘敞碧山陽 八條教典懷箕子 萬世儒宗仰素王
濟濟衣冠忻在坐 青青衿佩喜成行 文風豈特覃東海 聖化于今徧²⁾八荒
倪謙 稿

【校註】 1) 이 시의 제목은倪謙의 『遼海編』卷二에는 ‘謁成均館宣聖廟似同行諸君子’로 제어 있고, 『皇華集』卷一에는 같은 시가謁文廟라는 題下에‘余奉使至朝鮮之三日 因與司馬先生同赴成均館拜謁宣聖 升堂觀禮 喜而有作 雖不足以言詩聊識歲月云爾 輒用錄似同行工曹鄭相公 京尹金相公 禮曹李相公 均電覽焉’이라는 小序로 되어있다. 『皇華集』所收의 詩題가 가장 상세한 것으로 보아 초고의 내용이고 詩卷의 내용이 그 다음에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遼海編』의 詩題는 歸國후 刊行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리과정은 모든 문집의 편집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계이다. 2) 徧 : ②作遍

2.1. 奉次高韻)

謁聖還從入講堂 周旋咲語似春陽 風雲氣槩凌霄漢 黼黻文章佐帝王
杜老²⁾詩情已得妙 蘭亭筆法更分行 陪遊此日眞天幸 慙媿吾才拙且荒
館伴工曹判書鄭麟趾拜

【校記】 1)奉次高韻 : ②作次韻. 2)杜老 : ②作老杜.

3. 適承枉和 賦此奉酬 希發一粲1)

壯年風采2)氣堂堂 一片葵心喜向陽 筆法總能師二米 詩名應許3)繼三王
平生腹內詩千卷 此夕燈前字幾行 海表似君真4)可羨 始知文化被遐荒 5)
後正月初三 謙奉答冬曹鄭相公

【校記】1)詩題：①作鄭工曹見和卽席用韻以答，②作重承傑作復倚前韻奉酬草率勿哂。2)風采：②作風度。3)應許：②作應好。4)真：②作誠。5)詩末尾①有小注“初作謁廟詩 本以嘉其夷而右文也 不意工曹 席間吟和 似有陵騁意 隨和還之 自此 凡和其詩 俱觀罷卽答 頃刻而就 始皆驚服。”

3-1. 伏奉座上 走賦一篇 復賡前韻以呈 一哂1)

陪侍皇華在一堂 燕山影接漢之陽 清談亹亹論經史 邃學源源討霸王
珠玉隨吟題滿紙 龍蛇繞筆墨翻行 緬懷歸院金蓮燭 得見奇才到外荒
館伴工曹判書鄭麟趾拜

【校記】1)題：②作復賡前韻以呈 一哂。

4. 重辱佳章 復此爲答 殊媿辭之不工也1)

鳳詔2)親擎出廟堂 使輶遙駐漢之陽3) 聖明相繼4)當臨御 正朔弘頒屢紀王
方感綺筵陪盛禮 累煩佳句示周行 褒踰華袞吾何敢 却羨雄材接大荒
謙端覆
冬曹鄭相公

【校記】1)詩題：①作工曹再和 卽席復用韻答，①作疊謝珠玉之惠 敬賦此以酬幸勿哂言辭之召哂也。卽日謙再奉冬卿良相執事。2)鳳詔：③作鳳藻。3)漢之陽：①作屈新陽。4)相繼：②作繼統。

4-1. 復次聊冀破寂

聖神1)天子坐明堂 聖使聯翩到華陽 風裁絕倫今馬范 文章獨步卽歐王
歡欣相悅酒三酌 酬唱傳心字數行 孤陋願從承教誨 皇華胸次已包荒
館伴工曹判書鄭麟趾拜

【校記】 1)聖神：③作聖明

5. 傑作見示 愈出愈奇 草率賡去達意而已1)

連朝2)陪席在華堂 春暖偏忻日載陽 知禮久聞吳季子 能詩今見駱賓王
彩豪累牘驚鸞鵠 盛服駢肩喜雁行 天地生材同一氣 孰論畿甸與要荒
初四日 謙書奉 冬曹鄭相公

【校記】 1)詩題：①作工曹再和 卽席復用韻答. ②作昨晚卽席強 作 又承珠玉見投 足領盛德不可無言以答 故綴此. 2)連朝：②作連承.

6. 再用前韻 兼賦小詩一章 併似冬曹鄭相1)

粲粲清詞2)照廣堂 喈喈鳴鳳在朝陽 龍光射斗歸雷煥 萍實浮江詫楚王
應向天人深究理 肯從章句事尋行 明珠投我元非暗 莫喚迂疎學 3)圃荒
初元後正月 海關停征驂 喜逢冬曹彥 亶亶向我談
殷勤究經史 辨析將冥探 媿非行秘書 何以示指南
胸中富珠玉 筆底生煙嵐 每味雋永句 齒頰回餘甘
復此重追陪 日接常過三 情深意逾厚 千尺桃花潭
人生兩儀內 並立相與參 篤近在4)舉遠 一視皇恩覃
錢唐倪謙稿

【校記】 1)詩題：①作再用韻 兼小詩一章 併似鄭工曹，②作晨興盥櫛 因思前韻 復成一律 五字詩一章 併用錄出 聊抒旅況 仍希屬和 乃幸正閏初五稿 奉冬曹鄭相國閣下。2)清詞：②作清思。3)學圃荒：①作藝圃荒。4)在：①作而。

6-1. 坐上口號二篇 謹賡以呈 伏希教誨 1)

客館飄疑是玉堂 高談不覺到斜陽 新皇霈澤沾羣物 2) 外國輸誠奉一王
帷幄近臣辭鳳闕 絲綸學士別鵷行 東漸聲教超前古 共覩文星照僻荒
使華自天來 駕鶴仍鸞驂 一顧便開顏 袞袞聞清談
上挾雲漢分 下入驪珠探 霜蹄汗血種 風翮鵬圖南
詎容生鄙吝 快哉披雲嵐 交際淡若水 肯效多言甘
世間夸毗子 利盡德二三 絲竹無聒耳 詠罷龍吟潭
莫樂新相知 自喜相長叅 高明與其進 樛木葛之覃
館伴工曹判書鄭麟趾拜

【校記】 1)詩題：①②作復奉座上口號二篇 謹賡以呈 伏希教誨。2)沾羣物：②作霑群物。

6-2. 次韻奉呈內翰大人文几 1)

文星降九天 2) 聳睹遮華驂 賓館饒燕閑 有時騁雄談
尚論及千古 若取囊中探 贈我數篇詩 高價雙金南
態度靄春雲 俊逸飛輕嵐 傾心慕博雅 執鞭吾所甘
意到瞥電掣 立就思無三 筆下龍蛇走 綵幅掃寒潭
郢中與白雪 調古誰能叅 不量欲一和 空費情思覃
高陽後學申叔舟拜

【校記】 1)詩題：②作次韻。④次韻奉呈倪內翰大人文几 2)九天：①作

人天.

6-3. 奉次高韻敢希一哂1)

夫子騁文詞 輕車駕劇驂 撐腸千萬卷 四座應無談
玄哉天地窟 何深而不探 所目不負耳 名固擅斗南
海山千里邦 日夕多瘴嵐 跋涉豈不勞 靡鹽心所甘
數日杖屨下 益者非止三 政如撓不濁 汪汪萬頃潭
不有假星槎 下風安容叅 幸爾一文軌 聲教漸以覃
成三問拜

【校記】 1)詩題：②作次韻, ⑤作次韻呈倪天使謙

7. 荷承寶刀之惠 賦得小詩 奉謝均希電囑1)

玉匣出名刀 金環繫綵條 製經歐冶手 澤瑩鷺鶉膏
礪處臨秋壑 揮時瀉雪濤 文房倍增重 應不數豪曹
泛翁謹甫二知院賢契
正使倪謙稿

【校記】 1)題：①作謝知院申汎翁成謹甫惠刀, ②作謝前日惠刀子.

7-1 敬■ 韻奉呈 詔使內翰先生文几1)

詞峻發硎刀 秋鷹初解條 清談霏玉屑 和氣潤蘭膏
落落儒林幹 汪汪學海濤 管窺眞小見 陪侍愧2)吾曹
高陽後學申叔舟頓首

【校記】1)詩題：②作次韻，④敬■■ 韻奉呈詔使倪內翰。2)愧：②④作媿

8. 鄙句敬酬雅贐 不意有勞見和 是以不容已於言也1)

韞琤惠容刀 仍懸五色條 多君才韞玉 媿我德屯膏

麗句追高適 華賤邁薛濤 海邦驚見此 英俊豈凡曹

汎翁知院賢契

謙奉稿

【校記】1)題：①④作汎翁見和 卽席用韻以答，②作作承佳惠 聊以小詩奉酬 不意又勞清思 今特倚韻爲答 望勿哂也 謙再奉汎翁謹甫二知院賢契 ..

8-1. 敬次高韻奉呈1)

有珎愧鉛刀 腰間儻繫條 橫經側函丈 繼晷欲焚膏

筆掃千練雪 詞懸三峽濤 詩名百代上 老杜與爲曹

昌寧後學成三問拜

【校記】1)題：⑤作次韻呈副使 .

8-2. 再承清韻 不勝歎賞 復呈荒句 伏希容拙1)

遊刃操良刀 詩成紫錦條 清新饒變態 富艷足殘膏

汲古看脩綆 傾懷瀉駭濤 高名傳海外 仙籍記天曹

高陽後學申叔舟拜上

【校記】1)詩題：④作再承清韻 不勝賞嘆 復呈荒句 伏希容拙

9. 步韻 奉答汎翁謹甫二知院 兼柬冬卿鄭相公同覽1)
器大2)若牛刀 情舒似解條 飛黃多逸步 炙輶3)有餘膏
身沐天地雨 詞翻學海濤 新詩頻枉贈 復感鄭冬曹
謙稿奉

【校記】 1)詩題：②作迭前佳作復用韻答 兼柬冬卿 聊博一解頤耳 謙再奉汎翁
謹甫二知院賢契.. 2)器大：②作氣大. 3)炙輶：②作炙轂.

9-1. 再廣高韻奉呈1)

妬春風利刀 凌雪柳黃條 旅館寒將暖 新詩梁與膏
窺天持小管 測海怯2)驚濤 久矣慕鄒魯 莫言非我曹
三問拜上

【校記】 1)詩題：②作次韻. 2)怯：②作慄

9-2. 敬次高韻 聊以寄情1)

禮謹匪泉刀 誠深寓線條 設筵無管籥 調膳乏馨膏
春動妍妍2)色 杯搖細細濤 須知寸心赤 異日記工曹
館伴工曹判書鄭麟趾

【校記】 1)詩題：②作次韻. 2)娟娟：②作涓涓..

10. 春風玉樹 別我於江南 今十霜矣 茲寓朝鮮 好事者 以一盆見遺 傍值 翠篠清

與 爲之灑然 因成一律 錄似看花諸君子 1)

不見老梅今十年 相逢忽喜在朝鮮 魂飛月窟冰花冷 根託 2瑤臺綠萼妍
暗引寒香通鼻觀 平分春色到窓前 此君況復清如許 興繞西湖雪後天 3)
正使倪謙書奉

【校記】 1)詩題：①本題의 앞에 別道の 詠盆中綠萼梅라는 詩題가 있다. ②作春風玉樹 別我於江南 今十稔矣 茲寓使館 好事者 忽以一盆見遺 清興爲之灑然 因成小詩一章 錄似看花諸君子. 2)託：②作托. 3)詩 本文末尾에 ①有自注 “梅種於青磁圓盆 故以月窟瑤臺擬之”.

10-1. 次詠梅詩1)

盆梅吐白覺新年 不向羣芳妬色鮮 命相喜從殷室味 艷粧羞伴晉宮妍
月來疎影分深淺 風動清香繞後前 賓館寂寥無箇事 凌晨坐對日升2)天
鄭麟趾拜

【校記】 1)詩題：②作次韻. 2)升：②作昇.

11. 寓宿開城府有作1)

憶昨乘酣來碧蹄 馬頭迢迢還向西 長空陰翳晚猶合 近接萬壑蒼煙低
夜投公館醉復倦 國王送酒勞分携 盤飧羅列不下嚙 連嚼數顆含消梨
更深宴罷始就枕 銀蠟耿耿明中閨 晨興命僕戒行李 路指原平諳舊蹊
臨津江闊度官艦 桂檝劃碎青玻璃 春山花柳未肯放 但見茸茸回麥畦 2)
小橋悅耳急流響 高樹聒人幽鳥啼 開城遙望倚石壁 神居松岳連雲齊
入城街巷淨如洗3) 走集瞻視4) 紛群黎 郡堂何事重開席 玉壺清絲仍遠提
當筵曾此卻女樂 新詩尚記燈前題 終朝強飲惡沈酒 德將恐爲狂藥迷

千山萬津初⁵)發軔 明去歷歷思攀躋 心忙底用坐以待 且擁重衾聽曉雞⁶)

錢唐倪謙稿

【校記】1)詩題：①作宿開城府，②作過開城道中 馬上口號。2)麥畦：②作青蛙。
3)洗：②作掃。4)瞻視：②作瞻望。5)初：①②作始。6)詩 本文 末尾 에 ①有小注
“神居松岳 二山名。”

11-1. 敬次高韻奉呈¹)

皇華四牡青玉蹄 遠繫搏桑²)來自西 數日公館接緒論 不覺罄折頭常低
相逢歡樂今幾日 回輶復此成睽携 供賓下國無兼饌 釘粲只有栗與梨
雅情不效陶穀耳 豈少歌妓藏重閨 語言雖別道則一 適國幸爾同徑蹊
愛我謂我性嗜酒 一勸頻連十玻瓈 死且不避又敢辭 所喜交際無町畦
辭家千里送公歸 肯顧兒子³)牽衣啼 公是金閨第一才 四海九州名誰齊
駐節閑中千萬紙 少陵詩語文昌黎 顧我生平事文字 至今三十從孩提
陽春一曲本寡和 堪笑燕辭強顏題 恥此常常口語心 覺非猶未途盡迷
庶幾努力登坦道 進寸退尺何由躋 先生之鳴鳳與皇 嗟我舊中眞醯雞
昌寧成三問

【校記】1) 이 시는 『皇華集』이나 『戒先生遺稿』 등에는 수록되어있지 않은 것이다. 2)搏桑：①作扶桑。3)兒子：①作兒女

12 孝女四月詩 有敍

正閏廿又九日 路出郭山州 道左見鉅石卓然 刻¹)曰 孝女四月之門 詢之 則知爲
金氏女爲母患風氣疾 截指療之而愈 藩王嘉之 命有司復其徭役 而樹此以表厥宅里
者也 夫孝者 百行之首 萬善之原 以一房闔少女 猶能踐之 矧其士大夫乎 予於是

益知我朝列聖教化之漸被者 遠矣 昔有齊季女 嘗詠²於召南 茲予職當咨譔善道 可無一言³紀詠之乎 凡我⁴同行諸公 倘惠和答 亦足成東方之美也

朝鮮郭山州 有女金四月 少小性純誠 奉侍⁵雙親悅
一朝母嬰患 風痺氣累絕 皇皇女心憂 悲痛恒哽咽
醫云用人肉 食之病良輟 女聞親可延 寧計體⁶虧折
揮刀入中閨 斷指流鮮血 燒灰進湯劑 一飲真消雪
至孝通神明 感致何昭晰 始知帝降衷⁷ 不以華夷別
藩王表宅里 豈必施綽楔⁸ 千年永不磨 刻石名高揭
滄江殞曹娥 死生同一轍 嗟彼梟獍徒 欲熾天理滅
我來觀民風 過此忻駐節 載採入歌詠 庶足傳賢烈⁹
正使錢唐倪謙稿

【校記】1)刻：②作題.. 2)詠：②作載.. 3)言下②有以字. 4)凡我：②作因用錄似. 5)奉侍：②作孝奉. 6)虧：①②④作虧. 7)衷：②作夷. 8)綽楔：②作棹楔.. 9)賢烈：③作貞烈.

12-1. 伏次郭山孝女詩韻奉呈內翰大人文几

使節忽西回 正當春孟月 物華已駘蕩 遇興載欣悅
行經郭山道 孝女行峻絕 短表豎道周 有水繞鳴咽
高軒爲之駐 嘆賞久未輟 高義動耳目 行人亦磬折
王祥冰躍魚 壽昌書刺血 閨中豈知此 天資皎冰雪
吾王重孝理 有善必昭晰 褒美示後人 勒石以旌別
垂範各適宜 根闡與店楔 所以此孝女 芳名常揭揭
幸是一片石 乃復當還轍 伯樂偶一顧 益使名不滅
況爲世道計 作詩樹風節 三韓億萬世 清風吹凜烈
高陽申叔舟拜

13. 賦得近體一章 留別汎翁知院賢契1)

聚首東藩一月餘 情孚道合有誰如 喜諧音律吟2詩句 愛問形聲較韻書
季札朝周才不忝 由余佐穆國寧虛 別來尺素須頻寄 可信人間足鯉魚
謙稿奉

【校記】1)詩題：①作留別申汎翁. 2)吟：①④作吟.

13-1. 謹次留別之韻 奉呈文几

相送西來千里餘 江邊愁緒正紛如 數句談笑渾成夢 一別情懷不盡書
鵲山殘雪欺春白 鶴野晴雲觸眼虛 欲識他年功業大 蒼生海外亦魚魚
高陽申叔舟頓首

14. 賦得近體一章 留別謹甫知院賢契1)

海上相逢卽故知 燕閒談笑每移時 同盟2擬結金蘭契 共飲偏憐玉樹姿
敢謂揚雄3)多識字 雅奇4)子羽善修辭 不堪判袂臨江渚 勒馬東風怨別離
倪謙稿奉

【校記】1)詩題：①⑤作留別成謹. 2)同盟：⑤作同心. 3)揚雄：⑤作楊雄. 4)奇：⑤作知.

14-1. 敬次留別韻 奉送內翰大人使還

偶然傾蓋作新知 自賀吾生並一時 海外幾年傳美譽 眼中今日接丰姿
問奇漸1)免銀根誤 見惠頻煩黃蠶詞 聚散人間固無定 雲龍安得不相離

內翰才華天下知 文明政值聚奎時 三韓遠播²絲綸詔 萬目爭瞻冰玉姿
使節難留空悵望 郵亭相送只燕詞 江東日暮思無盡 叵耐春風生別離
昌寧成三問拜

【校記】1)漸：③作頗，2)播：③作接。

15. 用韻奉答汎翁知院賢契¹)

春仲纔臨越閩餘 江頭餞別酒漣如 筵開不雜玲瓏調 詩就何須阿買書
馬蹄蹀躞²諳歸³路 雁字聯翩點太虛 襟度久知⁴多磊落 肯從爾雅註蟲魚
倪謙端覆

【校記】1)詩題：①作汎翁見和 卽席用韻以答，②作留別之句不工 次韻之章何速 ■■、答之 固其宜也，2)蹀躞：②作蹴踏，3)歸：③作陽，4)久知：①作知君

15-1. 敬次高韻

微末叨承君子知 江頭解手屬春時 莫雲¹春樹思無盡 岸芷汀蘭暖有姿
風定扁舟應不住 情深斗酒敢言辭 天低野闊蒼煙合 始覺人間苦別離
高陽申叔舟

【校記】1)莫雲：①④作暮雲。

16. 用韻奉答謹甫知院英契¹)

離愁脈脈兩心知 常念驅馳送我時 入室芝蘭薰令德 昂霄松柏負奇姿
情如馬鬣無窮水 詩似曹娥絕妙辭 別後堪憐誰作伴 山花冉冉草離離

倪謙稿

【校記】 1)詩題：①作謹甫見和卽席用韻以答 ②作勞 句 賦此爲答 深情雅意 備見言外.

16-1. 再廣高韻奉別)

相知卽日喜心知 別後相思問幾時 鵲嶺²⁾雲寒仍臘雪 鴨江波綠已春姿
錦囊只乏奚奴拾 斗酒元非樊噲辭 千里送公今日意 一杯南浦忍分離
昌寧成三間拜

【校記】 1)詩題：⑤作敬次倪天使留別之韻送別, ④作敬次留別之韻奉送內翰.
2)鵲嶺：④⑤作鶴嶺

6. 結 論：本 詩卷의 文化史의 價值

조선시대의 盛衰를 논할 때 政治적인 면에서나 文化적인 면에서나 世宗代를 黃金기로 꼽는 데는 학자들 간에 이의가 없는 것 같다. 개국한 지 50여 년 만에 이러한 安定的인 國家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世宗의 탁월한 指導力을 바탕으로 集賢殿의 운영을 통하여 多才多能한 수많은 人才를 길러내는 데 성공한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 원인일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개국한 明나라가 內政의 혼란과 外침으로 인하여 皇제가 포로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皇제의 등극 조서를 가지고 조선에 온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에 세종대왕의 지도력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본고에서 다룬 『奉使朝鮮唱和詩卷』은 바로 世宗이 온 힘을 들여 양성한 대표적인 인재들이 當代 明나라의 뛰어난 文士인 倪謙(1415-1479)을 상대로 이룩한 韓

中外交史에 빛나는 업적을 縮約的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제 이 시권의 가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특히 전기에는 外交에서 詩文의 應對를 통한 華國이 文學者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所任의 하나였다. 倪謙은 文學에 능하고 자부심이 강한 인물로서 明나라 景泰帝의 登極詔書를 전달하기 위하여 조선에 입국하였다가 당시 조선 최고의 名流인 鄭麟趾(1396-1478)·申叔舟(1417-1475)·成三問(1418-1456)과 만나면서 자존심을 걸고 시문의 唱和에 임하였고, 정인지를 비롯한 3인은 집현전에서 축적한 文學的 學問的 역량을 對明外交의 현장에서 유감없이 발휘한 생생한 자료이다. 따라서 이 詩卷은 韓中 外交史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둘째, 이 시권은 처음부터 作心한 듯이 같은 중국산 종이에 각기 自筆로 筆書한 原稿라는 점에서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와 名人의 眞跡이라는 서예작품이라는 두 측면을 共有하고 있어서 書藝史的인 가치를 지닌다. 이 점은 조선 초기의 眞跡이 별로 전하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셋째, 예겸은 20세의 연상으로 館伴인 정인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가 자신의 詩에 次韻하자 자기를 업신여기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며칠을 함께 지낸 후에 다시 연회에서 만나 詩文을 주고받으며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에 감탄하여 “그대와 나누는 하룻밤 대화가 <내가> 10년 동안 글을 읽어서 얻는 소득보다도 낫다.”(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고 토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예겸의 이 말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조선 문사 정인지의 讀書의 양과 그 수준이 明朝의 뛰어난 문인학자인 예겸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예겸의 詩卷과 『朝鮮紀事』는 바로 집현전학사의 선배격인 정인지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넷째, 예겸은 朝鮮 使行에서 安平大君의 글씨와 자기보다 3년 年下인 성삼문의 인물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 명필들의 글씨보다 좋다며 중국에 전하겠다고 안평대군의 글씨를 얻어간 것이나 귀국후 자기의 門人인 張寧에게 이들을 놓고 각기 “天下第一筆”과 “天下第一人物”로 일컬었다. 외국인이 짧은 기간에 보고 평한 것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을 이토록 비범하

게 보고 있다는 것은 세종조에 배출된 人才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하나의 단서라고 하겠다. 이 시권과 『朝鮮紀事』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세종조 문화의 수준을 파악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다섯째, 이 詩卷에 수록된 詩文과 『皇華集』·『遼海編』에 수록된 詩文의 題目과 本文에 보이는 차이는 詩卷의 시문이 당시에 지은 최초의 원본이며, 『皇華集』과 『遼海編』등에 보이는 文字間의 異同은 淨書나 刊行過程에서 修訂 또는 錯誤로 생각된다.

여섯째, 이 詩卷에는 당시까지 함께 世宗의 총애를 받으며 가장 절친한 친구로서, 또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서倪謙을 상대로 詩文을 唱酬하였던 申叔舟와 成三問이 나란히 올라 있다. 그러나 5-6년 후에는 世祖의 왕위 찬탈에 대한 政治的 입장을 달리하면서 각기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택한 두 사람의 글을 한 紙面에서 만나보는 感懷가 있다.

<參 考 文 獻>

- 成三問, 『成謹甫集』, 韓國文集叢刊 第10冊,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 申叔舟, 『保閑齋集』, 韓國文集叢刊 第10冊,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8.
- 朴崇古, 『六先生遺稿』(古典國譯叢書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 『皇華集』, 서울: 靑雲出版社, 1989.
- 倪謙 等, 『奉使朝鮮唱和詩卷』(卷子本), 國立中央博物館藏
- 倪謙 等, 『使朝鮮錄』上(中朝關係史料叢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3.
- 倪謙, 『朝鮮記事』(羅振玉, 玉簡齋叢書), 上虞 羅氏刊本. 宣統 2年(1910).
- 倪謙, 『朝鮮記事』(沈節甫, 紀錄彙編 卷之65) 影印元明善本叢書十種之一. 上海, 函芬樓.
- 倪謙, 『倪文僖公集』(文淵閣四庫全書本)
- 倪岳, 『清溪漫藁』(文淵閣四庫全書本)

李東陽,『懷麓堂集』((文淵閣四庫全書本)

張廷玉,『明史』,서울,景仁文化社,1977.

焦竑,『國朝獻徵錄』,上海,上海書店,1987.

羅振玉,『雪堂類稿』丁:書畫跋尾.,遼寧教育出版社.2003..

譚正璧,『中國文學家大辭典』,臺北,河洛圖書出版社,1978.

朝鮮史編修會,『朝鮮史』15:第4編 制4卷,京城,朝鮮史編修會,1938.

臺灣中央圖書館,『明人傳記資料索引』,北京:中華書局,1987.

K C I